

예수님과 바울, 웨슬리가 가졌던... 7가지 리더십 유형

양기성 박사, '성공적인 리더십 유형 7가지' 특강

양기성 박사(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가 최근 서울신학대학교 성봉기념관에서 '성공적인 리더십 유형 7가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양 박사는 세계적인 경영·행정학자이자 연설가인 켄 블랜차드(Ken Blanchard)의 리더십 이론에 기초해 그의 45년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 교회 지도자 7가지 덕목'에 대해 소개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영적 사령관, 장군형 리더십'이다. 양 박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리더십이 곧 명령형 리더십"이라며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 등에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모세와 느헤미야 역시 명령형

리더십을 보였다고 했다.

특히 "웨슬리는 신도회의 성결한 삶을 위하여 부정적인 회원 추방을 강하게 명하였다"며 "웨슬리는 복음을 지키고 조직의 강화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부정적인 회원을 단호하게 추방했다. 1744년 12월 25일 메도디스트반회(Band Meeting)의 규칙을 통해서 강력하게 명령하는 지도자였다"고 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교회를 이끄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군사령관 장군형 스타일의 명령형 목회자임이 이미 밝혀졌다"며 "그들은 한결같이 마귀와 귀신에게 명령하고 그것을 추방하며 사자같이 마귀를 잡는 목회자들"이라고 했다.



특강하고 있는 양기성 박사. ©주최 측 제공

둘째 리더십 유형은 '지성이 풍부한 랍비형 리더십'이다. 양 박사는 "여러아이와 같이 작하고 순한 양들을 위해서는 선한 목자로서의 자혜와 지식의 교양이 절대 필요하다"며 "말씀의 양식과 정신의 교양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적인 교육과 정신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셋째로는 '희생적 섬김의 인자한 부모형 리더십'을 들었다. 그는 "성서적인 인간성이란 배고픈 자에게 빵을 먹여주며 헐벗고 떠는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죄인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주며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며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주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리더십이야말로 온 세상이 기뻐할 리더십"이라고 했다.

넷째는 '분권과 위임의 행정가형 리더십'이다. 양 박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영성과 지성은 인정했으나 행정이 되지 않자 불만이 가득해 졌다"며 "그러다가 안수집사에게 일반사역을 분담시키고

바울의 전문사역을 강화하게 되자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숫자가 늘어나고 대형교회가 된 것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조직을 이끌고 큰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행정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다섯 째는 '칭찬과 유머의 부흥사형 리더십'이다. 양 박사는 "사탄은 영원토록 칭찬이 없으며 칭찬보다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며 "현대사회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유머와 해학이 뛰어난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는 시대"라고 했다.

여섯 째는 '꿈과 비전의 독수리형 리더십'이다. 그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모든 교회 목회자에게 주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 반드시 비전의 사람

인가를 보신다"고 했다.

마지막 일곱 째 리더십 유형은 '성실하고 열정적인 개미형'이다. 양 박사는 "맹목적인 열정은 해롭지만 여호와와 비전을 성취하는 열정은 하나님의 심장이며 박동"이라며 "그렇기에 이사야는 '여호와 의 열심이 특심하여(사 9:7) 우리 소원을 100%로 성취하신다'고 하였다"고 했다.

양 박사는 "예수님은 이 리더십들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리더십을 본받았으며 18세기 영국 종교개혁의 완성자이자 성령신학의 주창자인 존 웨슬리가 이 일곱 가지 덕목을 견지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중 두 가지 이상은 갖추어야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쓰임 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국 대표자 회의 갖고 주요 사역 결의

오는 6월 '세계성시화 전북대회' 개최

내년 3월 '2026시드니국제성시화대회' 개최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캠페인' 전개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가 최근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전국 사도군 대표회의를 갖고 주요 사역을 결의했다.

오복사는 "성시화운동을 통해 교회를 연합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민에게 전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김상복 목사(대표회장)는 '주기도문'이라는 주제로 한 설교에서 "성시화운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이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에 조정을 맞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며 "마음의 죄의 식으로 고통을 당하면 평화가 없고, 성시화운동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이 먼저 깨끗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국 대표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오는 6월 19일과 20일 군산에서 '세계성시화 전북대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도경 목사는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 전국대회 개최를 희망한다고 들었지만, 전북에서 먼저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며 "전북대회를 통해 전북의 교회들이 성시화운동의 역사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한 마음이 되어 성시화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고영환 목사는 "이번 전북대회를 통해 성시화 사역 현황을 나누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집회, 성시화 세미나, 전북의 근대기독교 문화유산과 군산문화유산을 탐방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3월 '2026 시드니국제성시화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3월 열린 제19차 시드니 성시화대회에는 이수훈 목사가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시드니성시화운동본부는 2007년 3월 김준곤 목사를 주강사로 제1차 성시화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매년 성시화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대표회장 김병근 목사가 내년 20차 대회를 국제성시화대회로 개최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에서도 LA에서 국제성시화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

했는데, 대양주 성시화 차원에서 시드니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호주는 2004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매년 3월 첫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 시내 행진 등 마디그라축제를 하고 있다"며 "시드니성시화운동에서 3월 둘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성시화대회를 갖고, 주일 오후에는 다민족교회들과 함께 시내 십자가행진과 광장에서 기도와 찬양, 말씀 집회를 갖고 있다. 국내와 해외에서 많이 참가해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지역 대표들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투표참여 캠페인은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전용태 장로의 지도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또한 AI융합 전문 사역자 나모세 목사(기독교빅데이터센터장)가 AI 기술을 활용한 교회 전도 및 양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창조과학회와 생활경제연구소와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군수송열차 및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열차역에 있는 TMO 장병휴게소 사역을 하고 있는 장동일 교수(성악가)가 특송을 했으며, 4/14미니스트리 이사장 최완기 목사가 참석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성시화운동과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영 기자

B E Y O N D
ENTERTAINMENT
E L E V A T I N G
E X C I T E M E N 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톡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연세대 답콕, 대마 관련 강연 및 토론 진행

사단법인 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예방센터(이사장 두상달 장로, 이하 답콕)의 연세대 지부인 연세대 답콕이 최근 교내 과학원 S222호에서 대마 관련 강연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강의 및 토론에선 대마초의 위험성과 국제적인 법적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강연자는 ““Gateway Drug” 이론은 대마초 등 특정 약물이 더 강한 약물로 넘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가설”이라며 “즉, 대마초를 사용하면 점차 더 위험한 약물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해외에서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 체류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대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귀국 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



연세대 답콕이 마련한 강연 및 토론에 참석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답콕

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마 사용 합법화와 관련된 찬반 의견이 개진됐다. 학생 참가자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대마 합법화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한 참가자는 “두 입장의 여러 가지 주장을 들으며 대마 합법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만 바라보던 시각을 벗어나 해

외 마약 정책과 실제 상황을 접하며 토론을 진행하니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세대 답콕은 “학생들이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양한 관점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이슈를 논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답콕은 대학 캠퍼스 내 마약류 범죄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대학 내에서 마약류 중독 및 범죄 예방 교육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예방공동체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캠퍼스에 거룩한 문화운동을 전개해 20대 청년과 대학생들을 마약류 범죄와 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목표로 세워졌다.

김진영 기자

“자유민주주의의 존속, 선교 전진의 기반”

유경하·송섭 박사,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제18차 정기학술대회서 발제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회장 송은섭)가 최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델포이교회(담임 임동현 목사)에서 2025년 제1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故 소운정 박사 추모예배도 함께 진행했다.

발표에는 ▲유경하 박사(총신대)가 ‘헌법상 권리로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선교신학적 고찰’ ▲송섭 박사(총신대)가 ‘AI 시대의 효과적인 미디어 선교 방안: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종교의 자유 보장 안 되면 선교 활동 위축될 수밖에 없어”

유경하 박사는 “한국교회의 성장 둔화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예견됐으며, 2015년 기독교가 국내 1위 종교로 등극한 이후부터는 교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여기에 팬데믹 거처며 이러한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졌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의 위기는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교인 수 감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후 가장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함께 지니게 된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으로 목회자의 윤리적 타락, 불

투명한 재정 운영, 세습 문제 등 교회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그러나 이러한 내부 문제 해결만으로는 교회의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선교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회 외부의 법·사회적 환경 역시 함께 개선돼야 교회의 부흥이 가능하다”고 했다.

유 박사는 “종교의 자유가 단지 기독교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 전체의 질서와 평화,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표현·양심의 자유 등 다른 권리들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현실에서도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종교개혁 당시 신학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투쟁해 온 역사적 배경을 상기시키며 “이 권리는 단지 종교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루는 핵심 요소로 기능해왔다”며 “특히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 형성이거나, 전 세계 법치국가의 기반 마련에도 기독교 가치, 특히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큰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제18차 정기학술대회 참석자 단체 사진.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그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종종 새로운 사회 질서 형성을 목표로 하는 법제도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인식 증진이 필요하다”며 “법은 정의의 실현이자 동시에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따른 유동적인 체계이기, 변화하는 법 환경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유 박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입법 과정과 공론의 장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경우,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특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사상이 입법화되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적 소송으로 갈등이 확산되며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의 해체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단순히 ‘동성애’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면, 그 어떤 신성한 가치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교회가 속한 국가가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존속할 때 교회는 열방을 향한 선교의 가치를 높이 들고 전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미디어 선교, 복음 씨앗 뿌리는 사역

이어 두 번째로 발제한 송섭 박사는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의 선교 전략을 강조했다. 송 박사는 “미디어 선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디어에 담아 온 세상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제18차 정기학술대회 진행 사진.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에 전파하는 사역”이라며 “과거에는 구전과 인쇄물, 이후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같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이어 인터넷과 뉴미디어의 등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을 언급하며 “AI의 등장은 미디어 선교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했다”며 “기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는 미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콘텐츠의 설득력과 창의성을 더해줄 수 있는 영상과 실력을 갖춘 미디어 사역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한국교회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사역자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AI 기술 덕분에 제작은 더욱 쉬워지고 빨라졌다”면서 “의지만 있다

면 교회 내 미디어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찬양 사역자만큼이나 미디어 사역자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사용해 복음을 전한다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 즉 그리스도인 각자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매개체(미디어)가 되는 것만큼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에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미디어로서,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때,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성모 박사(성결대)가 발표에 대해 논찬했고, 행사는 종합토론 순서로 마무리 됐다.

장요한 기자

인천 중구, ‘아펜젤러선교길’ 현판식 성료

인천 중구가 최근 내리교회 비전센터에서 ‘1885 아펜젤러 선교길’의 명예도로명 지정 현판식을 진행하며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의미 있는 기념사업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제물포문화선교축제에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김정현 중구청장을 비롯해 이종호 중구의회의장,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황효진 인천시 정부부시장, 제물포문화선교사업위원회 노신대 위원장, 내리교회 김홍규 담임목사 등 장교계 주요 인사와 시민 약 400명이 참석했다.

특히,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의 5대손인 로버트 셰필드 씨가 직접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1885 아펜젤러 선교길’은 미국 감리교 소속 선교사였던 헨리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것을 기념해 명명된 길이다. 아펜젤러는 개항장이었던 중구 일대에서 선교를 시작하며, 인천내리교회를 설립해 한국 감리교



현판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 ©인천 중구

의 출발점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해당 명예도로명은 인천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항동1가 5-36)에서 내리교회(내동 29)까지 약 1.8km 구간에 걸쳐 있으며, 중구는 올해 3월 10일 이 구간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김정현 구청장은 현판식에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은 한국 기독교와 민족

발전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며 “명예도로는 중구가 한국 기독교 태동지임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예도로명은 역사적 인물의 공헌도와 지역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간 지정할 수 있으며, 실제 주소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노형구 기자

아펜젤러 선교사 5대손, 감신대 방문

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유경동)가 최근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의 5대손인 로버트 셰필드(Robert Sheffield)와 세계감리교협의회(WMC) 총무 레이날두 페헤이라 레앙 네투 목사(Rev. Dr. Reynaldo Ferreira Leão Neto)가 학교를 찾아 유경동 총장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로버트 셰필드는 현재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이번 방문은 선조의 선교 여정을 직접 따라가는 여정이었다. 그는 “선교사였던 할아버님의 뿌리를 따라 한국 땅을 밟게 되어 깊은 감동을 느낀다”며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와보니 조상의 신앙이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을 다시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 중 셰필드와 네투 박사는 감신대 총장실에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발자취를 담은 역사 영상을 시청한 뒤,



감신대를 방문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후손. ©감신대

한국선교의 의미와 오늘날 그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에 대해 유 총장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유경동 총장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후손이 이곳을 찾은 발걸음 자체가 감동적이며, 신앙의 유산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신대는 앞으로도 한국 감리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복음 전파와 교육 사역에 힘썼다. 1887년 배재학당에서 신학 교육을 시작한 그는, 이후 1910년 서대문 지역에 한국 최초의 신학교이자 남녀공학 교육기관인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세우고 초대 학장을 맡으며 한국 근대 기독교 교육의 기반을 다졌다.

그의 신앙적 열정과 교육에 대한 헌신은 오늘날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설립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형구 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APEC 2025 KOREA

지속가능도시환경조성

경북도청신도시

경북도서관

이번 주말에는 독서를 할 거예요

천년숲

활리하러 갑니다

돌봄·양육친화 환경 조성

- ☑ 융합 돌봄 특구 시범지구
- ☑ 양육친화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 ☑ 복합커뮤니티센터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 ☑ 경북도서관
- ☑ 도립미술관
- ☑ 경상북도기록원
- ☑ 스포츠컴플렉스지구 조성
- ☑ 패밀리파크

사통팔달 교통 허브도시

- ☑ 신도시 연계도로망 구축
- ☑ 안동KTX (서울역, 부전역 연결)
- ☑ 통합신공항 연계 도로망 구축

일자리 창출 기반강화

-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단
- ☑ 경북1,2차바이오산업단지

KTX

서울, 부산으로 여행갑니다

에리트레아 기독교인 수감자, 1년 새 66% 급증

한국 순교자의 소리 “탄압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된다”... 감옥에서도 이어지는 사역과 간증

한국 순교자의 소리(대표 현숙 폴리 목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리트레아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수감된 이들의 수가 2024년 한 해 동안 300명에서 50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6%가 늘어난 수치다.

현숙 폴리 대표는 “에리트레아 정부가 집주인들에게 기독교인에게 세를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 석방된 기독교인들이 주거지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젊은 기독교인들과 감옥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기 수감 교회 지도자들 덕분에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체포 사례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2002년 5월 22일, 에리트레아 정부는 이슬람교, 정교회, 가톨릭, 루터교를 제외한 모든 교회를 폐쇄했고, 그 이후 금지된 교회의 신자들은 정식 재판 없이 무기한 수감돼왔다”며,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 중 다수는 20년 이상 ‘선박용 철재 컨테이너 감옥’에 수감돼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갇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탄압으로 인해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리며,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수감자들은 가족과의 접촉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폴리 대표는 “가족은 면회도 물론 음식 전달도 할 수 없고, 수감자가 아플 경우 치료조차 이뤄지지 않으며,



에리트레아 사막에 설치된 선박용 컨테이너.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컨테이너에 20년 넘게 갇혀 지내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그 사실조차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3년째 수감 중이던 80대 목사님이 치료를 거부당해 숨졌고, 그의 아들은 7년 넘게 철재 컨테이너에 수감돼 있지만 아무도 그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전 세계 동역 기관들과 협

력해 수감자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교도소 내부로는 호의적인 교도관을 통해 돈과 음식, 약품을 밀반입해 수감자들을 돕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3년간 800명의 에리트레아 청년 지도자들을 훈련했고, 이 중 200명에게는 재정적 지원도 제공해왔다.

현재 이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

역 중 하나는 석방된 기독교인을 돕는 일이다. 폴리 대표는 “11년간 수감됐다가 석방된 한 기독교인이 가족으로부터 의절당한 사례가 있다”며, “많은 가족과 집주인들이 정부의 탄압을 우려해 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 기독교인은 수감 중 관절염을 앓았지만 치료받지 못했고, 현재는 기독교인 형제자매들의 보호 아래 있으며, 순교자의 소리가 주거비와 약값, 식비를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에리트레아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수감된 기독교인들의 간증과 나눔을 통해 비기독교인 수감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받은 도움을 서로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폴리 대표는 12년간 수감되었다가 4년 전 석방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

속했다. “그 여성은 다시 체포돼 사막의 감옥으로 보내졌지만, 지금은 그곳에서 수많은 수감자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으며, 자신은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감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은 금지되어 있지만, 다행히도 교도관이 기독교인이거나 호의적인 경우 편지를 밀반입하거나 반출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폴리 대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달된 한 수감자의 편지를 한국 성도들에게 공개했다. 이 수감자는 자신을 ‘오네시모’라는 암호명으로 지칭했다.

그는 편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형제님의 기도과 사랑 덕분에 감옥 생활 속에서도 잘 지내고 있으며, 함께 있는 형제들도 모두 형제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전했다.

홍은혜 기자

나이지리아 플레토주에서 기독교인 무차별 공격 당해

이틀간 기독교인 60명 이상 사망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나이지리아 플레토주 보코스 지역에서 지난 2일부터 3일(이하 현지시각)까지 이틀간 풀라니 테러리스트들이 기독교 마을들을 습격해 최소 6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보도했다.

해당 지역 주지사 케일럽 머트팡은 이번 사태를 “집단학살(genocide)”이라고 규정했다. 보코스 지역사회 지도자 마렌 아라도웅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보코스 카운티 내 7개 기독교 공동체를 상대로 감행됐으며, 특히 후르티 마을에서는 4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들은 4월 2일 오후 3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무장한 채 마을에 들어닥쳤다. 1,000명 이상이 대피했고, 383채의 가옥이 파괴됐다”고 했다.

보코스 지역개발위원회 의장 파르마습 푸당은 “첫날인 4월 2일에 21명이 숨졌고, 다음날에는 40명이 추가로 살해되면서 이틀간 사망자 수는 60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CDI는 공격 대상이 된 마을로는 루위, 망고르, 타미소, 다포, 망구나, 후르티, 타다이가 포함됐으며 루위 마을에서는 한 장례식 도중 11명이 살해되었고, 다음날



케일럽 머트팡 주지사는 이번 사태를 “집단학살(genocide)”이라고 규정했다. ©CDI

오전 추가로 10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머트팡 주지사는 4월 7일 아라이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누가 봐도 정치적 동기보다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대량 학살”이라며 “공격자들은 실제 불분명한 존재들이며, 목표는 토착민들을 땅에서 몰아내고 빈곤 속에 가두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풀라니 무슬림 목동들이 기독교 농민들을 몰아내고 3~5년간 땅을 점령해온 사실을 언급하며 “토지 강탈이 주요 동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플레토주는 다양한 종교민족이 오랜 시간 평화롭게 공존해 온 곳이다. 문제는 어떤 세력이 이 무장자들을 동원해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육군 대변인 삼손 자콥 소령은 “후르티 등 피해 마을에서 공격자들과 교전이 있었고, 군이 현지 수색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기와 오토바이 등이 회수됐으며, 도주 중인 무장세력을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4월 4일 성명을 통해 나이지리아 정부에 플레토주의 학살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정의 실현을 촉구하며 “우리는 이미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플레토주에서 1,336명이 학살당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반복되는 공격에도 보안 당국이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깊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주민은 “공격 전에 수차례 경고했고, 공격 중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군이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플레토주 기독교 지도자 통스망 다스 박 목사는 “계속되는 풀라니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여성, 어린이, 노인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으며, 마을과 교회, 시장이 폐허가 됐다. 수천 명이 피난민으로 전락해 필수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을 멈추기 위해선 연방 정부의 군사 개입과 정보 기반 작전, 정규 병력 배치도 절실하다”며 “정부는 악을 처벌하는 하나님의 사자(로마서 13:4)로

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영국 의회 종교자유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풀라니족은 극단주의자가 아니지만, 일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인들

로린 공격을 감행해왔다. 이들은 보코하람이나 ISWAP과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독교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상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2025 세계기독교 박해지수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순교하는 나라 중 하나로, 전 세계 기

독교인 희생자 4,476명 중 3,100명(69%)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다. 보고서는 북부 및 중부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 농촌 공동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부 지역과 북서부에도 무장 테러조직 ‘다쿠라와’가 출현해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나이지리아는 2025년 박해국가 순위에서 7위를 기록했다. 최승연 기자

바르셀로나 복음주의 교회 17곳, 도시 재개발로 폐쇄 위기

예배당 잃을 처지에 놓인 수천 명의 신자들... 시 당국과 대화로 해법 모색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최소 17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도시 재개발 계획에 따라 폐쇄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중 일부는 시 당국으로부터 이미 폐쇄 통보를 받았고, 나머지는 최근 카탈루냐 복음주의 협의회(CEC: Consell Evangèlic de Catalunya) 주최 회의에서 관련 사실을 전달받았다. 협의회는 이번 조치가 수천 명의 신자들에게 예배 공간을 잃게 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문제가 된 교회들은 주로 전통적인 산업 지대인 산트 안드레우(Sant Andreu)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창고나 상업시설을 개조해 예배 공간으로 사용해 왔다. 일부는 자가 소유, 일부는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모두 가치역 확장 및 지역 재구성을 포함한 메트로폴리탄 재개발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다.

스페인 개신교 매체 ‘프로테스탄테 디지털(Protestante Digital)’에 따르면, 2024년 12월 이후 총 11곳의 예배 공간이 점검을 받았고, 10월에 이미 해당 시설들이 도시계획법상 비정상적 위치에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시 당국은 이들 예배당이 활동 허가 없이 운영 중이며, 산업 용지에서는 종교 활동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의 안전 조건도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 당국과의 협의 노력

CEC는 각 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교회들의 권리를 지키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사무총장 길렘 코레아(Guillem Correa)는 바르셀로나 시장과 첫 회동에서 교회들이 예배당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시청 측은 종교업무국(Office of Religious Affairs)을 통해 대화 의사를 밝혔고, CEC는 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측은 조만간 지역 책임자 및 종교 담당관이 참석하는 공식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

코레아는 이번 회의에서 두 가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는 교회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거나 대체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CEC는 각 교회를 대상으로 목회적, 법률적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코레아는 “이 문제는 종교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예배당이 있어야만 주중 언제든지 신자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의 신앙 생활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시청 관계자 역시 프로테스탄테 디지털에 “몇 주 내에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현재까지의 조치 상황을 보고하고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통받는 교회들, 기도로 대응

지금까지 시청은 대부분의 교회에 기존 공간의 폐쇄 및 이전을 제안했지만, CEC는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최선의 해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코레아는 “교회들은 현재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모두 이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교회들이 금식과 기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도시 차원의 계획이라 시청의 직접적인 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비상 상황에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5곳, 20곳의 교회가 예배 공간 없이 남게 되는 상황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르셀로나 시청은 종교업무국이 요청이 있는 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새 예배 장소 확보와 관련한 법적 요건 및 허가 절차 등에 대해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은혜 기자



창립 26주년 에브리데이교회 임직 감사 예배

파택장로 3명, 명예장로 5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19명,
명예권사 2명 임직

창립 26주년을 맞은 노스리지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손창민 목사)가 4월 6일 오후 4시에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파택장로 3명, 명예장로 5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19명, 명예권사 2명을 임직했다.

이날 브리지 위십의 찬양으로 시작된 임직예배에서 존 이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김예림 자매의 특송에 이어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설교하고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와 김종욱 목사(국제 총회 상임 총무)가 축사를 전했다.

손창민 목사의 집례 하에 임직서약 및 안수, 임직패 수여가 진행되었다.

성제환 장로는, “장로로 파택된다는 점

에 대해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편한 시간이었다. 처음 에브리데이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내에게 이끌려 나오기는 했지만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자신도 없었다. 장로라는 직분도 맡게 만 느껴졌다. 장로로 파택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편함과 부담감이 찾아왔다. 그래도 자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대표 인사를 전했다. 이날 임직식에 앞서 주일예배에서 히브리서 11장 24절-26절을 본문으로 “버림과 포기의 믿음”(믿음이란 무엇인가 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세상에서는 살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그것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임직자들이 안수기도를 받고 있다. ©교회 측 제공

들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무엇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버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애와 집착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굉장히 두

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그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며, 제자들의 버림과 천국의 상급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제환 장로가 대표로 인사했다. ©교회 측 제공



손창민 목사가 임직식을 진행했다. ©교회 측 제공

“상경은,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자기의 생활을 유지한 채 예수를 따르나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부에게 있어 생명줄과 같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하나님의 부르함에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

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급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믿음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섬김이 진짜였습니까?”라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2025 ‘제1회 새누리 선교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마운틴뷰 새누리교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첫 선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선교대회는 새누리교회와 함께 하는 전 세계 14개국 38명의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교의 의미를 다지는 첫 번째 행사였다. 교회 측은 새누리교회 성도들과 외부참석자까지 모두 750여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남가주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고현종 목사(미국 어바인 디사이플 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목사(미국 토렌스 조은교회 담임목사) 등과 함께, 북가주에서 부흥을 이끌고 있는 손경일 마운틴뷰 새누리교회 담임목사가 선교대회 연단에 섰다. 3일에 걸친 선교대회에서는 예배와 세미나, 그리고 새누리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전 세계 14개국 선교 강의를 이뤄졌다. 새누리교회의 한 성도는 “복음의 현장



새누리교회 선교대회 집회 현장의 모습. ©교회 측 제공

을 생생하게 듣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매 예배마다 새누리교회의 ‘Ainos & Sozo’ 청년찬양팀과, ‘Bay Worship’ 그리고 새누리 주일찬양팀이 열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한 청년들로 구성된 댄스팀 ‘Body Worship’과 새누리 스킷 팀의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

랑을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대회의 마지막날인 주일 저녁에는 교회 성도들이 각기 배속된 목장에 지정된 선교사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며 만남을 가졌다. 이를 통해 각 목장에서 이뤄지는 후원들이 어떻게 전 세계 각국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미치고



새누리교회 선교대회 참석자들의 모습. ©교회 측 제공

있는지를 더 절실하게 아는 시간이 됐다고 교회 관계자는 전했다. 선교대회가 끝난 후 북가주를 방문한 선교사들은 7일부터 10일까지(월~목) 레이크타호(Lake Tahoe)를 방문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쉼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김민선 기자

뉴욕지역 2025년 부활절연합예배, 총 11개 지역에서 드린다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하연행 목사)가 2025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지역별 교회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뉴욕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는 총 11개 지역에서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린다.

가장 많은 교회가 참여하는 3지역은 김영환 목사(뉴욕총성교회)가 지역장을 맡아 퀸즈장로교회(김경석 목사)에서 25개 교회가 연합예배를 드린다. 1지역은 이종명 목사(뉴욕성장장로교회)가 지역장을 맡아 프라미스교회(하연행 목사)에서 24개 교회가 모인다. 5지역은 엄경호 목사(주안의교회) 지도 아래 뉴욕한민족교회(박준열 목사)에서 24개 교회가 함께한다.

뉴욕교협은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열고 교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2차 준비기도회는 4월 14일 프라미스교회(담임 하연행 목사)에서 열

린다. 1차 준비기도회는 지난 3월 28일 뉴욕예은교회(담임 김명옥 목사)에서 진행됐다. 뉴욕교협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교계의 연합과 화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지역: 이종명 목사/프라미스교회 2지역: 전희수 목사/퀸즈장로교회(김바나바) 3지역: 김영환 목사/퀸즈장로교회(김경석) 4지역: 김승희 목사/후러싱제일교회 5지역: 엄경호 목사/뉴욕한민족교회 6지역: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이트교회 7지역: 박진각 목사/뉴욕센트럴교회 8지역: 이지용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9지역: 최호섭 목사/뉴욕서광교회 10지역: 최기성 목사/한인동산장로교회 11지역: 이종명 목사/뉴욕성결교회

김대원 기자



웨체스터지역 부활절연합예배

2025년 사랑의빛선교교회 장학생 선발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대학 신입생, 대학생 및 신학대학원생

남가주 파사데나에 위치한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기 위한 장학생을 모집한다.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시면 될

요한 서류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기간: 4월 6일(주일) - 5월 4일(주일)
- 지원자격 및 신청문의
*SEED장학금

사랑의빛선교교회 등록교인 및 자녀로서 2025년 대학 입학 예정자 및 대학생(4년제) 신청문의: lolmc.SEED@gmail.com
*엘림장학금
미주목회자자녀 및 선교사자녀로서 2025년 대학 입학 예정자 및 대학생(4년제) 신청문의: lolmc.ELIM@gmail.com



*장탄옥장학금
목회자, 선교사 후보생으로서 2025년 신학대학원 입학 예정자 및 신학대학원생(M.Div Only) 신청문의: lolmc.JTO@gmail.com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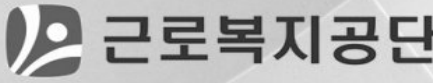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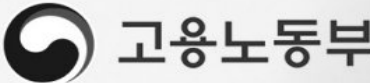
푸른씨앗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글로벌선진학교, 2025년 최정상급 대학 합격자 및 장학금 수혜 늘어

GEM·GVCS 글로벌선진학교 2025 기자간담회 열려
가을학기 입학설명회 4월 19일 문경, 26일 음성
5월에는 서울 등 전국에서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진행

GEM·GVCS 글로벌선진학교이사장 남진석(가운데)이 2024~2025년 대학입시 결과에서 세계 최정상급 대학 장학생과 합격자를 전년도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이 대학으로부터 약속받은 장학금 총액 수도 4월 3일 현재 약 70억 원(중복 포함)에 달하며, 4월 말까지 주요 대학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합격자 및 장학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선진학교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 2층에서 진행된 2025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음성, 문경, 미국, 세종 등 각 캠퍼스의 특성에 맞게 글로벌 교육 과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결과, 상당수 학생이 US NEWS 랭킹과 QS 세계 랭킹 기준에서 상위 랭킹학교로 진학하는 동시에 상당액의 장학금을 약속받고 진학하는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합격한 대표적인 최상위권 대학은 아이비리그인 다트머스대학, 미국 10위권 대학인 사카고대학, 존스홉킨스대학, 맥길대학, USC대학, 뉴욕대학, 쥘리안드대학, 시드니대학, 아시아권 대학으로 세계 최정상급에 속하며 세계 10위권 대학인 홍콩대학, 홍콩과학기술대학 등이다. 세계적인 혁신대학인 미네르바대학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이 넘는 경쟁을 뚫고 합격자를 배출했다.

대륙별 합격대학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100여 개 대학, 유럽권 5개국 10여 개 대학,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권 5개국 10여 개 대학, 국내 20여 개 대학으로 현재까지 집계됐다. 남진석 글로벌선진학교 이사장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회복에 3~4년이 걸렸고, 이 기간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났다. 잘 버티고 잘 교육했더니 계속 좋은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 학생들, 유럽 및 아시아 대학에 상당수 진학

글로벌선진학교는 “국내 및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북미 대학보다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유럽, 아시아권 대학에 예년보다 더 많은 학생이 진학하고 있다”며 “각 대학은 현지 국가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대학들이며, 주로 농생명과학, 의료 보건, 엔지니어, 관광 등의 전공으로 상당한 장학금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남진석 이사장은 “3년 전부터 수능과 상대평가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국내대학 입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아이들이 해외로 더 눈을 돌리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장학혜택을 많이 주는 좋은 학교를 꾸준히 찾아 성과를 얻고 있다.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꽤 많이 받으면서 작년부터 올해 더 좋은 조건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남 이사장은 글로벌선진학교가 계속해서 좋은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남 이사장은 “먼저 정부는 교육개혁을 10년 단위로 하고, 저희는 5년 단위로 한다. 두 번째는 교원의 열정이다. 대부분 교사가 부모같이 아이들이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대하니 아이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세 번째가 신앙의 힘이다. 특히 크리스천 학교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가 주도가 된다”고 말했다.

◇문경캠퍼스 디자인 트랙 교육 결실 나타나

문경캠퍼스는 4년 전부터 고등학교 과정에서 생명과학, IT·AI, 디자인, 스포츠 등 산업 영역에 기반하는 전문 트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미네르바대학 합격 등 탁월한 입시 결과를 얻었는데, 올해는 세계 최고의 디자인 예술 대학에 거액의 장학금을 약속받고 다수의 학생이 입학 허가를 받았다.

남진석 이사장은 “학벌, 유명대학 위주로 가던 대학진학이 최근에는 미래 비전과 연관하여 실속 있는 학과 중심으로 진학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며 “주목할 만한 것은 작년에는 문경캠퍼스의 축구부 아이들이 해외대학, 국내대학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장학금을 받고 진출했는데, 올해는 디자인 베이스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파슨스 등 세계적인 대학에 진학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내대학 진학 결과는?

글로벌선진학교는 “국내대학은 수시전형보다 정시전형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시제도가 변화하고 있어,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국제화 교육을 강조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는 예년에 비하여 다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이러한 추이에 따라



남진석 이사장이 2025년 대학진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희희 기자

앞으로 국내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제화 교육 기조를 지키면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 국내대학 진학 현황은 대표적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와 각 교단 신학대학(한국침례신학대학교, 장로교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고신대학교 등),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남대학교, 배재대학교, 목원대학교, 계명대학교 등으로 진학하고 있다. 또 글로벌 특화교육을 하고 있는 우송대학 솔브릿지,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도 다수 진학하고 있다.

국내 상위권 및 수도권 대학진학의 경우 한국외대, 고려대, 차의과대, 중앙대, 서울예대, 배화여대 등에 합격했다. 국내에 진출한 송도 글로벌캠퍼스의 외국계 대학도 그 교육의 질을 인정받고 있어 매년 다수의 학생이 진학하고 있다. 남진석 이사장은 “국내 송도캠퍼스의 장점은 해외 본교보다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것이 하나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2024년 7학년 대상 'New Grace 프로그램' 성과

정부 인가 대안학교인 글로벌선진학교는 국제화 교육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갖춘 자연 친화적 학교이다. 현재 국어, 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영어 교과서로 공부하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영어 수업을 받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영어구사력을 향상시키는 데 국내 교육과정은 상당한 제한이 있어, 2020년부터 7학년(중1)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약 1년간 미국으로 영어몰입 연구 과정을 갖는 ‘그레이스(Grace)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레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 100여 명의 한국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는 영어몰입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2024학년도부터는 ‘뉴 그레이스(New Grace)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7학년(중1)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봄학기를 한국에서 이수하고, 가을학기부터 10여 개의 미국 자매학교에 소수로 분산 배치했으며, 가능하면 잘 준비된 기독교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면서 영어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도입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글로벌선진학교는 “2025학년도에도 지난해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영어구사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뿐 아니라, 참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더불어 자매학교 지역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영적 돌봄을 더욱 긴밀하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진석 이사장은 “우리나라 글로벌 교육을 복기해 보면, 90년대 후반부터 조기 유학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서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며 “자동차 디자인 등 산업디자인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한국 유학파로 아마어마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래픽 관련 영화 제작 기법에서도 한국 기술자들이 압도적이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세계 6위로, 국방산업의 핵심적 기술을 이끌어가는 기술 인력들도 글로벌 교육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외국에 보내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민족 정체성이 훼손되는 측면을 많이 걱정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키우면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 “도심에서 아이들을 모아 학원식 집중교육을 하면 상당히 결과를 내지만, 정서교육이 결핍된다”며 “저희 학교는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학습량이 적어 불안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도 실제 있다. 그러나 학교가 시골에 있어, 아이들이 대자연과 호흡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입시 결과를 냈다는 점은 상당히 자부할 만한 좋은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시대, 탁월한 기독교 대안교육 요점”

남진석 이사장은 이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교육현장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라가 굳세게 갈 것으로



①음성캠퍼스 영어 수업 모습 ②문경캠퍼스 수업 모습 ③세종창의캠퍼스 영어 수업 모습 ④진학지도 받는 학생 ©글로벌선진학교

믿는다”고 말했다. 남 이사장은 “다만 대안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여야가 합의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시기가 불안정하니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기조로 학령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대안학교 수는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개별학교들이 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므로 불편한 의도로 들릴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대안학교가 조금은 난립하는 측면이 있다. 교육 관점에서 보면, 교육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진석 이사장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받은 이들인데, 신앙적 가치만 지속적으로 추구한 학교 교육의 결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며 “영적인 군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속적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한 지적 수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전제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과정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잘못하면 한 세대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루저 세대가 될 수 있다”라며 “누군가에게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의 약화로 이어진다. 저출산에 탁월한 기독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이사장은 “저출산 시대 학생 확보가 어려운데, 저희 학교는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며 “외국 학생도 비자를 주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외국 학생들이 오기 시작한다. 학교 유지 측면도 있지만, 이 기회에 확실하게 그 출신 국가에 영향

력을 끼칠 수 있는 인재로 키워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본국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선진학교는 이날 동문들의 비전소리와 음성캠퍼스, 문경캠퍼스, 미국캠퍼스 진학소리를 엮어 제작한 책 ‘평범에서 비범으로’를 배포했다. 남 이사장은 “저희 학교 졸업생이 2,000명 정도로, 어느 학교보다 졸업생 추적 관리가 잘 되어 제가 목사님들이 심방하듯 전 세계를 다니며 졸업생들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세계 각국 대학을 졸업한 이후 행적을 보면 흥분될 정도”라며 “아이들그룹 국제마케팅, H자동차 최연소 과장, 독일의 중소기업 부사장 대우로 일하거나,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세계적 기업에서 일하기도 한다. 지금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된다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을학기 입학설명회 개최

글로벌선진학교는 2025학년도 가을학기 학생 모집을 위해 문경캠퍼스에서 4월 19일, 음성캠퍼스에서 4월 26일, 세종캠퍼스에서 5월 17일 각 오후 1시에 입학설명회를 진행한다. 5월 중 서울 및 수도권, 대전·전안 중부권, 대구·부산 영남권에서 찾아가는 입학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

입학설명회는 재학생들의 다양한 피드백과 간증, 학부모 및 졸업생들의 간증, 이사장과 학교장의 교육철학 및 비전 나눔 등으로 진행된다. 캠퍼스방문 설명회의 경우 학교시설과 기숙사 등을 직접 살펴보고, 재학생들과의 인터뷰도 가능하다. ※입학문의: 음성 043-871-7050-2/문경 054-559-7050-2/미국 044-865-6705, 044-868-6561, ※후원문의: 043-871-7016 이희희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EWP 한국동서발전주



자원영토 확장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나갑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동해 및 서·남해 지역에서 광범위한 석유탐사를 추진해 자원영토를 넓혀 나가는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에너지 안보를 수호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 대선 본격 출마 행보 돌입

출마 선언 압박 속 경선 캠프 구성 완료… 민주당, 대선 체제로 전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를 끝으로 당 대표직에서 공식 사퇴했다.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사실상 대선 출마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경선에 출마하는 인사는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권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직 사퇴 시점이 조정됐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 “당대표로서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출발할 때는 험난했지만 퇴임하는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 생각한다. 모두 동료들의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의 문화도 많이 변화했다. 과거에는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재임 기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예고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한 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형성을 언급하며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철도도, 폭력도 없었던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 넘게 이어졌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힘”이라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또한 국민의 위대한 DNA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저도 그 역경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사퇴 이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커버 이미지를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직 사퇴 후 박찬대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국회를 나서며 박수를 받고 있다. ©뉴스시스

로 교체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이르면 1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캠프 인선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캠프는 계파색을 최대한 줄이고 실무 중심의 인사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선거

대책위원장에는 5선 윤호중 의원이, 총괄 본부장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를 전후해 대선 출정식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민생 우선, ‘회복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책 기조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이후 내놓은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은 오는 16일 공식 출범한다.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으며, 이 대표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정책 파트너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내세우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경선 물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당규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됐다. 특별당규준비위원장에는 4선 이춘석 의원, 선

거관리위원장에는 4선 박범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한편, 바이재명계 주자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비명계의 대표 주자로 꼽히며, “포퓰리즘이나 무책임한 감세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 대표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7일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부산, 봉하마을, 평산마을을 연이어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불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역시 출마 여부와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국 기자

국민의힘, 5월 3일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 확정

공직자 사퇴 시한 앞두고 일정 마무리… 공정경선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의힘이 오는 5월 3일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최종 결

사, 대선 경선 체제에 본격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호준석 위원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인 만큼, 하루 전인 5월 3일에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선 방식과 세부 일정은 1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호 위원장은 “이번 경선은 젊은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참신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비대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경선 방식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후보 등록은 10일 공고 이후,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16일 오후 2시에 1차 경선 진출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마약, 담배, 크,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 경력을 기준으로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선에서는 기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K-보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국민의힘 자체 모바일 투표 시스템이 활용된다. K-보팅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나 당 자체 시스템을 선택하게 됐다는 설명이

다.

기탁금은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최대 3억 원 상한선 내에서 조정된다. 호 위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원은 “과거에는 경선 단계를 나눠 각 차수마다 1억 원씩 기탁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번에도 그와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경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후보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당 기획조정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명태군 방지 조항’으로 불린다. 여론조사 신뢰성 훼손과 불공정 논란을 방지하고 정치자금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각 캠프에 제공되는 선거인 명부의 유출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내역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선관위 산하에 ‘클린 경선 소위원회’도 꾸려진다. 위원장은 전주혜 선관위원이 맡고, 이소희 선관위원, 최기식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김기윤 변호사 등이 함께 참여한다.

호 위원장은 “공정 경선을 위해 선거운동 제한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며 “비상대책위원, 시도당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장, 당무 집행기구 주요 당직자, 대변인단 등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히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조기에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이후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용국 기자

검찰, 문재인 정부 사드 정보 유출 의혹 관련 서주석·정의용 등 기소

사드 작전정보 반대단체에 누설 혐의로 3명 불구속 기소…

청와대 고위직 기밀 관리 도마 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군사작전정보가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관리행위방해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관리행위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관련해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의 중국 측 대상 작전정보 유출 의혹, 이기현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의 사드 반대단체 대상 정보 제공 혐의 등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

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한미 간 군사작전 정보를 중국과 국내 반대단체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정식 배치에 앞서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임기 내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아 사드는 경북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돼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상태가 지속됐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 전 차장, 정 전 실장, 정 전 장관, 이 전 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서 전 차장의 자택과 사드 반대 집회가 이뤄졌던 경북 성주 일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3월 30일에는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 결과, 서 전 차장은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기지 공사 자재 반입과 관련된 군사작전정보를 반대단체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한 실제로 군사작전 명령이 하달됐음에도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유도탄 및 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교체와 관련된 2급 군사기밀을 반대단체에 제공하라고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의 중국 측 군사외교 채널에 전달한 작전정보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군사기밀 누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군사외교적 필요에 따른 설명 수준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군사기밀의 정의와 고위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국 기자

1755년 제네바에서 하이 워치메이킹의 탁월함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정, 인내, 전문성을 향한 도전.

"가능한 한 더욱 잘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

결코 끝나지 않을 도전.

바쉐론 콘스탄틴은 탁월함을 추구해 온 역사의 270주년을 기념합니다.

the Quest

VACHERON CONSTANTIN
GENÈVE

VACHERON-CONSTANTIN.COM에서 자세히 만나보세요

트럼프 행정부, 57개국에 상호 관세 전격 발효

한국 포함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추가 관세 부과... 중국에는 104%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조치가 9일 공식 발효됐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전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부터 해당 조치가 효력을 발휘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57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됐다. 해당 명령에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

10%를 적용하고, 여기에 추가로 상호 관세 최대 50%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들이 환율 조작과 과도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통해 미국에 구조적인 무역 적자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해 대응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적용된 상호 관세는 미국이 지정한 57개국의 수입품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대 50%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국가별 관세율은 상이하게 설정됐으며,



한국에는 25%, 일본에는 24%, 유럽연합(EU)에는 20%, 인도에는 26%가 각각 부

과됐다. 동남아 주요 생산 거점 국가들에는 특히 높은 세율이 매겨졌다. 미국 다국적 의류 기업들의 생산 기지로 알려진 베트남에는 46%, 캄보디아에는 49%, 방글라데시에는 37%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을 의존하는 구조를 압박하고,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가장 주목을 끄는 국가는 중국이다. 미국은 당초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지난 4일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대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조치를 취했다. 그는 8일 오후 12

시까지 중국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경고했고, 중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상호 관세 발효 직전 이를 84%로 상향 조정했다. 결국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기본 관세 20%에 더해 총 104%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는 미국이 단일 국가에 적용한 관세율 중에서 매우 이례적인 수치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대응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관영 신화통신 산하 SNS 계정인 '뉴탄진'은 "구체적인 대미 반격 조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수했다"며, 미국 영화 수입 금지, 팬타닐 관련

협력 중단 등 6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는 기본 관세 10%는 이미 지난 5일부터 발효된 상태다. 이번 상호 관세 조치는 이러한 기본 관세에 더해 특정 국가들에 한해 이중 부담을 부과하는 형태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치가 전 세계 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 연합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경제 관계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나래 기자

한미 정상 첫 통화... 무역·관세·방위비 협상 신호탄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 통화 북핵부터 방위비까지 포괄적 협의 의지 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밤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간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된 시점을 하루 앞두고 성사된 이번 통화에서는 무역 불균형, 조선산업 협력, 북핵 대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등 민감한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종리실에 따르면 통화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를 조금 넘긴 시점에 약 28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국의 최

고위 인사와 직접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재단소에 의해 파면된 이후, 외교당국은 대행 체제가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정상 간 직접 통화를 추진했고, 백악관과의 협의를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한미 동맹이 새 정부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특히 조선산업,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무역균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 의지

를 강조했다. 이는 미국 측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문제를 거론하며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협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한국의 막대한 무역흑자와 높은 관세, 조선산업 이슈, 대규모 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투자,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보호 비용" 등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한국이 군사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협상을 종료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포괄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

장을 피력했다. 그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가 가능하다"며 한국 고위 협상단이 현재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상호관세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워싱턴DC에는 정인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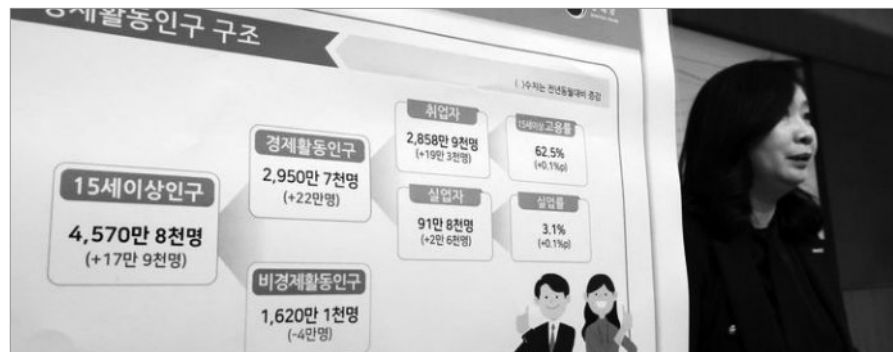
도착해, 양국 간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현지 특과

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관세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양국은 지속적인 전략 동맹 강화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경제와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일괄타결 방식의 '윈스톱 협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용국 기자

3월 취업자 19만 명 증가... 고용 회복세 속 청년층 취업난 지속

건설·제조업 등 주력 산업 고용 부진... 청년 고용률 4년 만에 최저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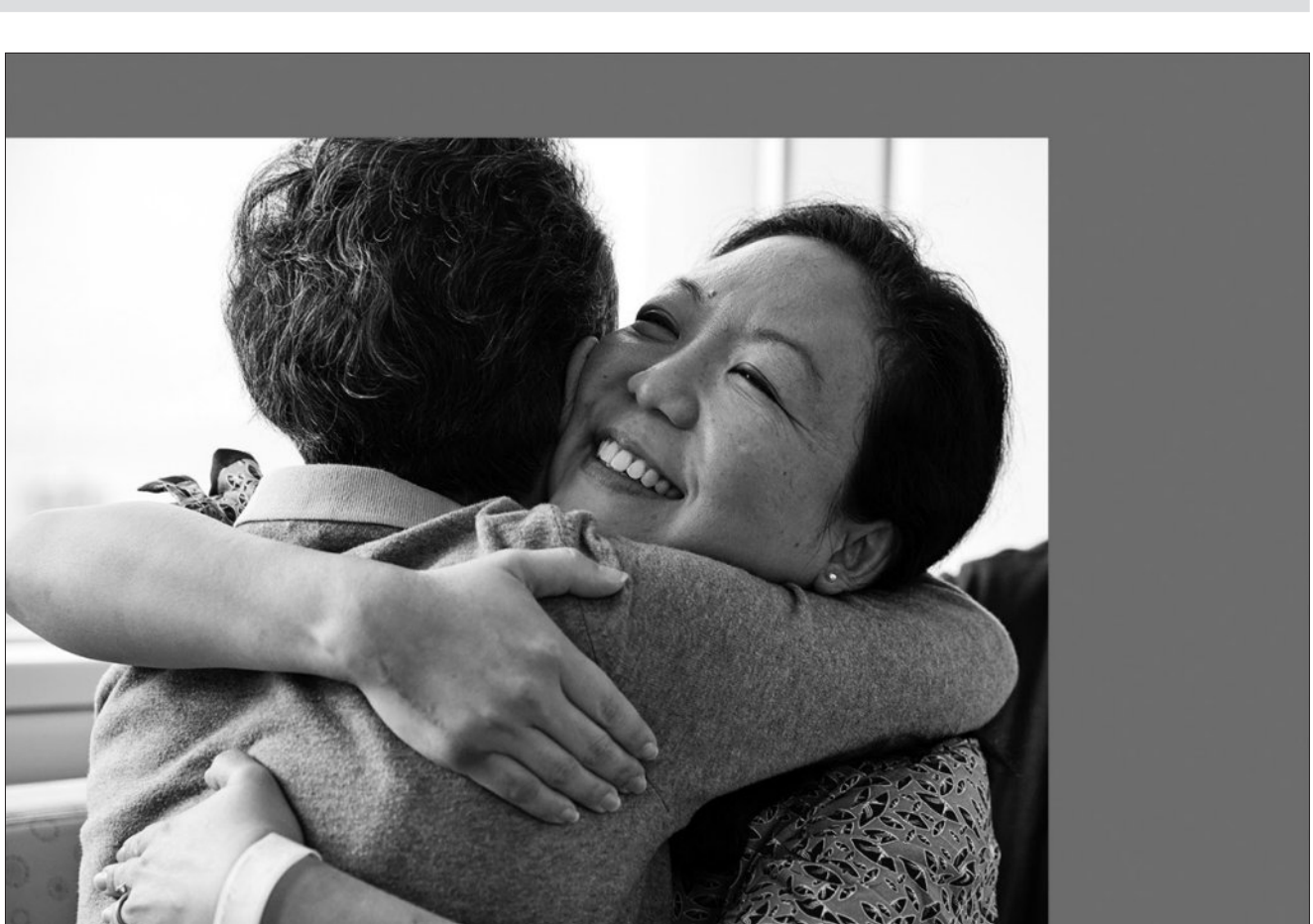
2025년 3월, 취업자 수가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회복세 속에서도 청년층의 고용난은 여전했고, 건설업과 제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서는 고용 위축이 지속되며 고용시장의 구조적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 3,000명(0.7%)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1월(13만 5,000명), 2월(13만 6,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증가 폭으로는 지난해 4월(26만 1,000명) 이후 가장 크다. 전체 고용률은 62.5%로 전년 동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해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3%로 0.2%포인트 올랐다. 실업자는 91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6,000명(3.0%)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3.1%로 0.1%포인트 상승했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950만 7,000명으로 22만 명 늘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0.3%포인트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 1,000명으로 4만 명 감소했지만, 그 중 '쉬었음' 인구는 7만 1,000명(2.9%) 늘었다. 반면 육아(8만 6,000명), 연로(1만 6,000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은 감소했다. 취업준비자는 68만 6,000명으로 2만 7,000명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35만 4,000명으로 3만 6,000명 줄었다. 산업별 고용 현황은 온도차가 뚜렷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 2,000명 증가, 7.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 7,000명, 6.6%), 금융 및 보험업(6만 5,000명, 8.9%) 등에서는 고용이 늘었다. 하지만 건설업(-18만 5,000명,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8.7%), 제조업(-11만 2,000명, -2.5%), 농림어업(-7만 9,000명, -5.7%), 도소매업(-2만 6,000명, -0.8%)은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은 11개월, 제조업은 9개월, 도소매업은 1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7만 명, 2.7%), 서비스 종사자(13만 8,000명, 4.0%), 사무 종사자(12만 7,000명, 2.5%)는 증가했으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6만 6,000명), 단순노무 종사자(-5만 5,000명),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4만 8,000명)는 감소세를 보였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23만 4,000명, 1.4%)와 임시근로자(12만 6,000명, 2.7%)는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10만 명, -10.9%)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에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만 9,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 8,000명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 5,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36만 5,000명)과 30대(10만 9,000명)는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20대(-20만 2,000명), 40대(-4만 9,000명), 50대(-2만 6,000명)는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고용률은 44.5%로 전년보다 1.4%포인트 하락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7.5%로 1.0%포인트 상승했고,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17.1%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쉬었음'으로 분류된 20대는 41

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8,000명(16.3%) 증가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고용 상황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수시 및 경력 채용 증가와 학업 참여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향후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관세 전쟁과 경기 불확실성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고용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월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건설·제조업의 고용 감소와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025년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신속히 마련해 상호관세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청년 고용을 위한 전담 플랫폼과 핫라인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나래 기자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안센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 & Johnson

교회로 돌아오는 젊은 남성들… 노르웨이서 나타난 새로운 흐름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존 스톤 스트리트 회장(사진)과 티모시 파젯 박사의 기고글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가?’(Are men returning to church?)를 7일 게재했다.

스톤스트리트 회장은 폴스 기독교 세계관 센터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신앙과 문화, 신학, 세계관, 교육 및 변증법 분야에서 인기 있는 작가이자 연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파젯 박사는 폴스 기독교 세계관 센터의 BreakPoint.org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최근 저스틴 브라이얼리(Justin Brierley)가 소개한 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를 비롯해 핀란드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최근 교회 회원 수가 750명 증가했다. 미국 텍사스처럼 종교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세속화된 유럽에서는 이례적인 변화로 간주된다.

노르웨이 인구 약 550만 명 중 60% 이상이 국교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고작 2%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예배 참석률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미국에서는 약 25%가 주간 예배에 참석하고, 3분의 1은 한 달에 한 번, 3분의 2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교회를 찾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르웨이에서의 작은 증가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과거 개신교의 중심지였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

견했던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기독교를 국교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률과 기독교적 영향력, 윤리, 실천 모두에서 큰 하락세를 겪고 있다. 이번 변화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 출석자가 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출석자들의 정체성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반적인 증가 외에도 지금껏 관찰되지 않았던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성인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놀라운 점은 그 증가의 주된 주체가 젊은 남성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던 경향과는 반대되는 양상이다. 초기 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회는 남성보다 여성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르웨이를 포함해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젊은 남성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신앙을 탐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지 목회자들조차 왜 남성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서구 사회의 젊은 남성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 배경 중 하나로서는 지난 수십 년간 서구 문화, 특히 대중문화와 교육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온 남성성과 청년 남성들의 이미지가 꼽힌다. ‘독성 남성성(toxic masculinity)’이라

는 표현이 일반적인 남성성 자체와 거의 구분되지 않은 채 비판받아왔다는 분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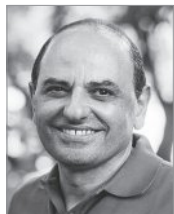
기독교 작가 사무엘 제임스(Samuel James)는 교회 문화에서조차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지적한다. 그는 “복음주의 문화에서 여성 그룹은 ‘격려’, ‘친교’ 같은 단어로 설명되지만, 남성 그룹은 ‘책임’, ‘연마(sharpening)’ 같은 단어로 묘사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어떤 그룹이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가?”라고 반문했다.

남성에게 여성적인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오히려 성별의 경계를 흐리는 문화가 남성의 절망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남성에게 도전의식을 부여하는 언어와 프로그램이 더 매력적일 수 있으며, 교회가 종종 강조하는 ‘착함(niceness)’은 남성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일부 청년 남성들이 교회 대신 앤드류 테이트(Andrew Tate) 같은 인물에게 끌리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마도 일부 남성들은 현대 문화가 강조해온 ‘절대적 자율성’, ‘개인적 평온’, ‘물질적 풍요’가 결국 공허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을지 모른다. 서밋 미니스트리(Summit Ministries)의 제프 마이어스(Jeff Myers)는 최근 강연에서 “미국은 막대한 부와 사회 서비스,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살아갈 의미’를 갈망하며, 교회는 그 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승연 기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과 그 치명적 결과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네셔널(CDI)은 J.존(사진)의 기고글인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에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보기’(Find out how close you are to being considered a fool)를 최근 게재했다.



J. 존은 목사, 연사, 방송인,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 팟캐스트인 ‘J. John Podcast’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4월 1일은 일반적으로 만우절(April Fools’ Day)로 여겨진다. 그 중심에는 잘못된 신뢰가 있다. 우리는 어떤 뉴스 기사나 친구의 이야기를 믿고, 그 믿음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 놀라게 된다. 끊임없는 허위 정보, 가짜 뉴스, AI 생성 이미지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는 지금, 우리는 신뢰를 훨씬 더 조심스럽게 주고 있다. 필자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 사역에서는 끊임없이 가짜 J. John 페이스북 페이지들과, 추악한 목적을 가지고 팔로워들에게 접근하려는 온라인 시도들과 싸우고 있다.

사실, 성경이 어리석음(fools)에 대해 말할 때는 결코 농담하지 않는다. 성경은 가장 강한 어조로 말하며,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트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개역개정)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fool)’는 지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아이 같은 믿음을 칭찬하셨다(마태복음 18:3-4; 마가복음 10:15).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란 IQ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부정하고 지혜를 조롱하며 옳은 것보다 그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성경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외면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일까?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일까, 아니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일까? 둘 다 맞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지혜이시기 때문에(잠언 9:10, 다니엘 2:21-22 참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점점 더 깊은 어리석음으로 빠져드는 길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지갑이나 핸드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 하나의 손실이 다른 여러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을 해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의미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세상에 아무 목적이 없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무신론은 세상과 존재, 삶 자체를 최악의 농담처럼 바라보게 한다. 존재에 어떤 궁극적인 목적도 없으며, 우리는 먼지에

서 왔다가 결국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나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치르게 되는 대가는 너무나 무겁다. 그것은 모든 궁극적인 의미를 잃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도덕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삶의 모든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며 “정말 잘못된 일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은 결국 인간이 만든 무의미한 생각에 불과하다. 하나님 없이라면, 결국 “더 강하고, 더 거칠고, 더 잔인한 사람이 이긴다”는 잔혹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논리적이다.

물론 그 잔인함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면 우리는 싫어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항의할 근거조차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트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한 후, 성경은 직설적으로 덧붙인다: “그들은 부패하였으며,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무신론자 중에서도 좋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럴 만한 근본적인 이유는 없다.

셋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으로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성경이 말하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삶이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해롭고 열등한 대체물들에게 지배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로 반드시 채워진다.

신학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표현했다. 정말 현명한 말이다. 인간은 본성상 예배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제거하면 우리의 마음은 곧 다른 것인 소유, 부, 정치, 쾌락, 성, 권력, 명성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한 우상들은 곧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지배하고, 그들의 채워지지 않는 요구로 인해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된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진짜 어리석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점점 더 깊은 어리석음으로 끌고 가며 결국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무신론을 거부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것 이상임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린도전서 1:30)를 아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길 바란다. 언제가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회개의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결코 웃을 일이 아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길 바란다. 최승연 기자

“우리 인생의 큰 산…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기대해야”

조현삼 목사(서울광영교회)가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인생의 큰 산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조목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을 만날 때가 있다. 그 산이 나지막하면, 그래도 오를만하다. 삶다. 그 산이 높아지면 우리 마음도 같이 힘들어진다”며 “만나 는 산의 크기와 비례해 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작아진다. 큰 산을 만나, 더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이들도 있다. 나는 여기까 지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처럼 페르시아 도 큰 산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페르시아라는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며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힌 땅에서 독립을 동을 하고, 독립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산이 그들



앞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스가라를 통해 말씀하셨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속 4:7)’ 하나님은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다”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고 계신다. 우리는 큰 산이 평지가 된 역사를 안다. 오늘의 이란,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왕이 놀라운 조서를 내린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이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 막고 있던 큰 산인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하시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큰 산이 큰 도움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인생에도 우리 힘으로 어 떻게 할 수 없는 큰 산을 만날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큰 산 앞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며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외쳐야 한다”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외쳐야 한다. 하나님은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했다.

조목사는 “큰 산이 있는 곳에는 큰 골짜기가 있다. 큰 산은 높아서 장애물이고 골짜기는 깊어서 장애물”이라며 “그러나, 큰 산이 평지가 되면, 골짜기도 평지가 된다. 큰 산을 잘라 거꾸로 들어 골짜기를 매립하면 큰 산도 평지가 되고 골짜기도 평지가 된다. 가용 평지가 광대하게 늘어난다. 페르시아 제국 왕들이 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재도 주고 방해가 있을 때는 막아도 했다. 이게 큰 산이 평지가 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도 살다보면 큰 산을 만난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때 우리는 절망”이라며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큰 산아,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는 큰 산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거래의 기회를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개인연체채권 매입인도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기업구조혁신펀드

• 중소기업은행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지원금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국가)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십자가에 달리신 왕, 나사렛 예수(6)



김명환 교수
기독교학술원장
송실대 명예교수

역사적 예수 논구 시리즈

VII. 골고다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역사적 현장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 역사상의 처소가 바로 골고다이다. 골고다의 사건은 역사의 정점이다. 여태까지 세계사의 방향이 거기로 향하였고, 거기로부터 세계사는 앞으로 다가오는 종말적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펼쳐진다. 골고다의 사건이 없었다면 세계사는 무의미하다. 세계사는 단지 시간의 무한한 연속이 아니라 목적을 지닌 하나님의 경륜적 과정으로서 그 목적은 스위스 구속사 신학자 쿨만이 천명한 바같이 역사의 구속(Heil als Geschichte)이다.

저자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역사의 구속과 더불어 자연의 구속이요, 우주의 구속이 골고다 대속의 사건에 함축되어 있다. 온 자연과 우주도 하나님의 역사인 시간이 진행되는 외적 공간으로서 탐욕적 인간의 과학기술의 개발과 남용에 의하여 오염되고 파괴되었기 때



문이다. 유엔 산하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이미 시작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금세기 후반까지 여름철 북극 얼음(sea ice)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심각하게 경고했다(“북극얼음 금세기 말 사라질 수도” 유엔 기후변화특, 온난화 강력경고 “온실가스 억제해도 수세기 간 진행” 파리=강경희특파원 khkang@chosun.com 입력 : 2007.02.03. 00:02)

영국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공동 연구팀은 남극 남부 반도 지역에 있는 빙하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녹아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취재파일〕 녹아내리는 남극 빙하…지구 중력이 달라진다 SBS 원문입력 2015.06.06. 09:51 뉴스. 그러므로 역사의 구속자 그리스도는 보좌에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만

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a).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골고다의 사건은 믿음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요한서신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生生)하게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일 4:9).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바 같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사랑이란 바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시작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

라”(요일 4:10). 골고다의 수치와 치욕과 고통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되신 아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일치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갈등 세계 구원과 해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 골고다의 사건은 역사의 목적과 의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드라마라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 드러난다. 역사와 우주에 대한 영원한 작정과 예정은 성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사랑이요, 그것을 역사 속에서 추진하는 내면적 동력은 성자되신 나사렛 예수의 대속하시는 사랑이요, 이것을 인간과 역사와 우주에 적용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사랑에 의존한다.

인간 역사와 우주의 과정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과 만물을 향하여 베푸시는 무궁한 역동적인 삼위일체적 사랑의 드라마이다. 이 사랑이 역동적이라 함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죄의 끊임없는 반향과 불순종과 반역의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으며, 여기에 공종의 관세인 악마인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이 허용되는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구속(救贖)이 순간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성도의 견인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계속>

헌재의 결정을 거부한다: 헌재는 헌법이 아니다



고세진 박사
전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총장

지금 세상은 부모가 훈육한다고 어린 자식을 때려도 법의 제재를 받는 시대다. 지배층이 백성을 농락하는 과거는 지났고 지도층이 국민 앞에 잘못하면 벌을 받고 퇴출당하는 시대다.

헌재는 헌법이 아니다. 감투를 쓰고 최상위층에서 대한민국의 단물을 빨아 먹고 있는 자들의 말이나 결정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들이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것을 보며 울분에 싸여 있다. 헌재가 입맛대로 결정했으니 가재-붕아개구리 같은 국민들은 그저 받아들여라? 어렵다! 국민이 물이고 너희가 가-붕개이다. 물 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는 걸 잊지 말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얽혀 있는 자들이 헌법재판관이었으니 계엄의 핵심 요자인 선거 부정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나 반대에 앞장선 자들의 가족이 헌법재판관이었으니 소추안 접수 때부터 이미 탄핵 인용 결정은 확정된 것이었다고 봐야 된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관이고 또는 헌법재판소 수장이었으니 어찌 윤 대통령에게 공정한 심판을 했었겠는가?

법적 하자가 수도북하고 초시계를 제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제한하고 엉터리 증언들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이런 방식의 재판이라면, 나도 너도 다 불이익이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신호탄을 그들이 쏘아 올린 것이다.

문행배가 읽은 판결문을 찬찬히 뜯어 읽어보라. 그것은 법의 판결문이 아니라 반대파 숙청연도문이었다. 그들은 헌법 재판관들이 아니라 헌법제단사들이었다. 이런 재판소의 판결에 반대하는 것은 지성인의 책임이다. 나라가 거덜나고 있는 데 논 갖고 있는 자는 악의 동장꾼이다. 승복? 못 한다. 안 한다. 이제 부당한 승복요구 쓰나미가 올 텐데? 승복을 해? 동성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승복할 텐가? 고려연방제 법안을 통과시키면 승복할 텐가? 사유지의 토지국유와 법안을 통과시키면 승복할 텐가? 교회폐쇄법을 통과시키면 승복할 텐가?

강력히 거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

령 탄핵 때 승복했더니 재미가 들어서 이제는 윤 대통령 취임식 직후부터 탄핵을 노래 부른 민주당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승복하면 다음 우파 대통령은 취임도 못 하고 또 탄핵을 당할 것이다. 내가 차분하게 폭력 없이 넘어가자고 했던 것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이 거대한 악의 무리를 척결하지는 뜻이지 부당한 판결에 기죽고 설칠 기자는 말이 아니다.

손현보 목사는 다시 일어나라.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였다.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혼자 승복한다고 결정하면 주체당은 일이다. 여의도 광장에 모였던 애국동지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당신이 광장에 나설 때는 놀러 나온 것이 아니었다. 당신이 집회 일정을 반포하고 국민들에게 참석하라고 한 것은 국민과 무슨 약속을 한 것이었다. 약속을 믿은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된다.

헌재의 헌법 '제단'을 보고 물려나려면 뭇 하러 국민들을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 시켰는가? 당신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랬는가? 성도들 앞에서 제멋대로 하는 황제형 목사가 아니라면, 그냥 승복한다고 물러서는 것은 애국동지 국민들을 이용해 먹고 버리는 다른 형태의 매국노 행위에 다름 아니다. 승복해서 뭘 일이 아니다. 손현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 지도자답게 애국동지들에게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라! 비겁하게 뒤로 빠지지 말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정리해야 한다. 즉, 사전투표만이라도 금지하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60일 내 대선을 또 망치게 된다. 따라서 세이브 코리아는 지금 주저앉으면 안 된다. 손현보 목사! 그동안 훌륭하고 혁혁하게 선두에 서셨는데 여기서 승복하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나는 오늘 20년 묵은 헤어드라이어를 분해해서 그 안에 잔뜩 싸인 먼지를 꺼내서 청소했다. 이제는 그 물건이 새것처럼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뜨거운 공기를 뿜어낸다. 다시 제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계단계 앞에서 나라를 오작동하게 하는 중독주사, 중독국 매국노들을 청소하자. 419 정신으로 강력하게 반발하자!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자! 어두운 밤에 화등잔 같은 눈으로 멍인감을 사냥하는 수리부엉이처럼, 철쭉 같은 나라의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좌파의 적폐를 청산하자! 지금은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 탄핵의 역풍이 강력하게 불게 하자!

경청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김철영 목사
세계성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다.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나는 윤석열의 파면을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경청(敬聽)'을 하지 않은 데 있다고 판단했다.

지나해 총선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국정운영과 가족의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권면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목회자가 서신을 보낸 후로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그 목회자의 권면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12.3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그리고 구속과 파면으로까지 이어졌을까. 또한 윤 대통령 측근들이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하고 작언했다라면 파국을 맞았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는 문제까지 각계각층 지도자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한 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소통비서관에게 종교계 지도자들을 찾아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가감 없이 직보하도록 지시했다. 국회 정책협력 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크리스천 형제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되어 나라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교계 핵심 지도자 몇 분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다. 교계 지도자들에게는 청진이나 인사성 발언보다는 꼭 조언해야 할 내용을 준비해서 작언하시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가장 잘했다. 연합기관과 활발한 소통과 함께 교단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경청했다. 무척 듣기 거북한 발언도 과감 없이 했지만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여론 수렴에 힘을 쏟았던 것 같다. 나도 시민사회수석들과 몇 차례 만나 의견을 제시했는데, 경청 후에는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국립현대미술관 2층 회의실에서 문체부 고위공직자들과 서울대 종교학과 최홍상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교수 4명과 목회자인 내가 참석해 회의를 가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임 제한 조치를 중대본이 취했을 때 종교계 중 한국교회가 가장 반발이 심했다. 그때 한국 기독교계의 여론을 과감 없이 전달했다. 그러면서도 대안을 제

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안타까웠던 것은 교계의 공적인 리더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적인 리더십 대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용산으로 불러 간담회를 가진 일이 더 많았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교계 전체의 여론을 전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과 문체부 종무관실과의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지난 4월 4일 윤 대통령은 파면됐고, 6월 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대통령은 경청을 잘 해야 한다. 60분 중 55분을 혼자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 된다. 마음과 귀를 크게 열어 쓴소리라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2 - 1618 - 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염좌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하나님의 법과 가이사의 법(13)

서헌재 박사

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마 7:15, 갈 1:9)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마 7:15) 경고하셨다.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9)라는 말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한편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다(마 7:2). 이처럼 하나님의 법인 성경은, 가르침은 분별되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균형을 요구한다.

이단 사이비는 우리의 구원을 망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급전 착취, 가족 해체, 심리적 지배 등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그에 대한 침묵은 곧 이단에 대한 방조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하여 이단을 비판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신앙적 책임이며 신앙공동체를 보호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기독교 2천년 역사에서 거짓되고 부패한 종교권력자들이 참 진리를 외친 소수자들이

박해할 때 이단 프레임은 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요 7:49)라고 하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정죄하였다(행 24:5,14).

중세 말 부패한 가톨릭 교권에 맞서 종교개혁을 부르짖다가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한 안 후스나 수많은 박해를 받은 루터의 사례는 이를 웅변으로 말해준다. 교단 부패나 세습을 비판한 목회자들에 대한 ‘이단몰이’가 종종 일어나는 한국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 시대, 그 박해가 곧 복음의 진실을 입증한다”라고 본화파는 절구가 큰 울림으로 들려온다.

이단 사이비가 주는 피해는 단순한 종교적 갈등을 넘어 가족해체, 재정적 파탄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이 시대에, 이단비판은 더 이상 교회의 안의 문제만은 아니다. 특히 모략전도를 통해 정통 교회에 침투해서 파괴할 뿐 아니라 코로나 확산의 통로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 신천지 등 이단은 사회적 공적(公敵)이 되었다.

그러나 이단사이비들은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민형사 책임을 묻거나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정보도 청구를 하여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법을 잘 모르는 목회자나 교단 관계자들은 움츠러 들 수밖

에 없고 담대한 이단비판을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 즉 이단을 이단으로 비판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법원은 “이단”이라는 표현은 특정 교단의 권위에 의하여 배척된 교리 또는 집단이라는 뜻일 뿐 그 자체가 그릇된 것이라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개 이단이라는 비판을 할 때에는 ‘적그리스도니, 사탄이니 하는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런 정도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단비판 설교나 유인물 배포, 구호제창은 자기 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일반인들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하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가급적 감정적 비난은 삼가고 이들이 왜 이단인지에 대한 성경적, 교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해야 한다. 주요 교단에서는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를 세워 이단의 유형과 그릇됨을 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악령의 세력들은 우는 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벧전 5:8). 이별 때일수록 바른 교리를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믿고 담대하게 이단들을 비판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양떼들을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지키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모세 출생의 비화

박진호 목사

렘피스커비우즈한인교회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출1:22)

애굽에서 노예 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심히 강대해지자 바로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전쟁이 나면 애굽의 대적과 힘을 합해 반기를 들고 도망칠까 염려했습니다. 완전 무보수 노예들이 없어진다면 대규모 건축공사를 이룰 방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발한(?) 지혜를 짜냅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은 도무지 죽일 수 없었고 대신에 제지 있게 돌려대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1:19)라는 “거룩한 거짓말”(?)로 궁지를 모면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아쩔 수 없이 또 다른 묘책을 냅니다. 히브리 신생아가 남자면 전부 하수에 던지고 여자면 살리라고 합니다. 그럼 전후 사정상 성경기록에는 없지만 무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 그의 나이 80이 넘어서입니다. 그럼 모세 이후 80년간 이스라엘에 남자의 씨가 말라버린 것입니까? 출애굽 때에 남자라곤 늙은 노인들뿐이었습니까? 분명 그렇지 않은진대 어찌된 연유였습니까?

성경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록이 없을 때는 논리적 분석으로 행간을 읽거나, 그마저 어렵다면 합리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노인만 있었다는 것은 성경의 전후 기록과 도무지 일치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직후 르비딴에서 아말렉과 싸웠 이겼습니다.(출17:8-15) 노인들로만 전쟁을 치렀다는 힌트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할 때에도 헬기 왕성한 장년들이 앞장섰습니다.

물론 모세가 태어난 직후 얼마 동안에는 몰래 낳아서 숨겼다가 들켜서 죽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근본 이유가 공짜 노동력의 상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따져도 아무 쓸모 없는 노인만 남겨두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바로도 그 조치가 너무 억지임을 깨닫고 취소했다고 보는 것이 모든 정황상 타당합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요? 모세 출생 때만 잠시 있었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순전히 선부는 판단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얼마 안가 그 실패가 뻔히 드러날 자기당작적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로의 독단에 따른 것 같지만 실은 그 배후에 모세의 출생을 저지하려는 사단의 음모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족속이 그분의 백성을 음해, 말살하려는 계략이나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음모는 항상 완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완전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자기 종 바로를 움직여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의 출생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적진 한복판인 바로의 궁정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구원자로서의 모든 자질을 훈련받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이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모세 때문에 애꿎은 많은 어린이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장 합당하고 선한 방안을 동원해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도 그 또한 그분의 완전한 선하심 안에 붙잡혀있다는 뜻입니다.

소보다 못한 신자가 되지 말자!

신성욱 교수

아신대 설교학



독일 남부 작은 시골 마을에 소 한 마리가 단연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평소 남달리 자신을 아끼던 주인이 죽자 우리를 박차고 나와 도로를 가로지르고 공동묘지의 담을 넘어 주인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다. 이 일로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마을에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고, 무덤가를 떠나지 않던 소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겨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황소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던 촬영팀은 평소 주인이 소를 가족처럼 아꼈기에 소 역시 죽은 주인을 잊지 못해 무덤을 찾아갔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2002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얘기가 뉴스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자신을 돌봐주던 이웃집 할머니가 숨지자 축사를 박차고 나와 할머니 산소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경북 상주시 사벌면의 ‘의로운 소’ 이야기다(국민일보 2002년 3월 11일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소에 관한 내용이 하나 소개되어 있다. 삼상 6:10-16절에 나오는 얘기 말이다. 이 내용은 헌신예배나 신학교 졸업식 예배 시에 ‘벤세메스로 가는 소’ 혹은 ‘소보다 못한 인생이 되지 마시다!’란 제목으로 주로 설교 되는 ‘헌신예배 및 졸업예배 맞춤형’ 본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본문으로 설교한 설교자의 내용 중 하나를 요약해서 소개해보자.

〈소보다 못한 신자가 되지 말자!〉(삼상 6:6-16)

- 1)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끼를 향해 뒤돌아보지 않은 암소들이었습니다.
- 2) 사명을 위해 서로 협동하며 목적지까지 끝까지 달려간 두 마리 암소들이었습니다.
- 3) 사명을 다한 후에는 희생의 제물이 된 암소들이었습니다.

결론: 한갓 미물에 불과한 암소들이 이렇게 자식에 대한 연민의 정을 억제하면서 사명의 길로 달려갔고, 마침내 희생의 제물이 됨으로써 완벽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본문의 암소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전적인 헌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류의 설교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다. 삼상 6:12절에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울고’란 단어를 놓쳐선 안 된다. 당시 암소들은 하나님을 누구신지도 몰랐을 뿐더러,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거나 충성하고 헌신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새끼들에게만 마음이 다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젖을 떼지 않은 두 마리의 소들을 강권적으로 제어하셔서 약속의 장소까지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의 시험에 가까이 응하신 내용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새끼들에게만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소들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

는가? 오늘 나는 새끼소를 향한 어머니의 ‘살신성인적 희생’을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시청했다. 여러 차례 돌려볼 정도로 내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영상이다. 소 우리에 불이 났는데, 하필이면 불이 붙은 짚단 앞에 갓 태어난 새끼소가 누워 있었다. 불이 나자 조금 떨어져 있던 어머니가 즉각 자신의 몸으로 불이 붙은 짚단에 드러누워 새끼소를 막아 나섰다. 수소는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데, 어머니 소는 자신의 큰 몸뚱아리를 불붙은 짚단 위에 던져버렸다.

불을 끄려는 의도보다는 새끼를 대신해서 타 죽으려는 심산으로 보였다. 뜨거운 불길 속에 자신의 엉덩이와 뒷다리와 배 부분이 타들어 감에도 새끼 하나 살릴 요량으로 불 위에 누워버린 것이다. 그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안전한 새끼 얼굴 한 번 쳐다보고선 타들어 가는 자기 몸 뒤쪽을 의연히 돌아보는 그 모습이 정말 눈물겨웠다. 다급히 주인이 불을 끄려고 나서는 모습을 끝으로 영상은 끝이 난다.

오늘 이 어머니는 ‘모정’(母情)과 ‘모성애’(母性愛)가 뭇지, 그게 어떤 것인지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소가 틀림없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머니의 사랑엔 차이가 없다. 아빠소는 그저 논문 검색검색한 채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아빠란 게 오늘처럼 부끄럽고 죄스럽게 느껴진 때가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희생적인 어머니들의 사랑과는 ‘족히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시켜주시 ‘하나님의 사랑’ 말이다.

사 49: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다. 어머니가 친자식을 잊는 경우가 혹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생각해보야겠다. 무엇보다 어머니 소보다 못한 인간은 되지 말아야겠다 굳게 다짐한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항산화 효과,
일반 마늘의 **5배!**

매일 먹는 마늘, 오늘부터
153새싹마늘로 바꿔보세요!



화학비료&병충 ZERO
물고기와 식물의
공생 시스템으로 키운
100% 친환경 새싹마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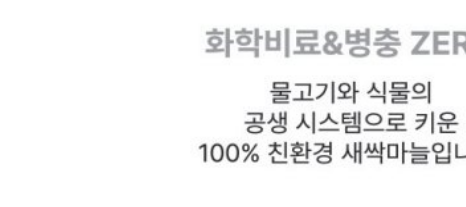


영양소의 극대화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해
높은 영양가와
신선도를 자랑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
물 사용량 및 농업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환경과 사람에게
건강한 농법입니다.





특허받은 아쿠아포닉스 재배 방식

깨끗한 물에서 화학비료와 병충해 없이
건강한 새싹마늘만을 키우는 재배 방식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허번호 : 제10-1581729호

판매처 : 153 헬스코리아 주식회사

상품명: 153 새싹마늘 원산지: 국내산 포장재질: PET 보관방법: 구입 후 냉장보관 생산자: 두두아쿠아
인증번호: 제10307836호 유통기한: 2024.01.10 ~ 2024.01.15 소비자상담: 070-7895-1597
*뿌리 채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씻어서 드세요.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제품 구매하러 가기 →

153새싹마늘 스마트스토어

N 153 새싹마늘

구매 문의 **070-7895-1597**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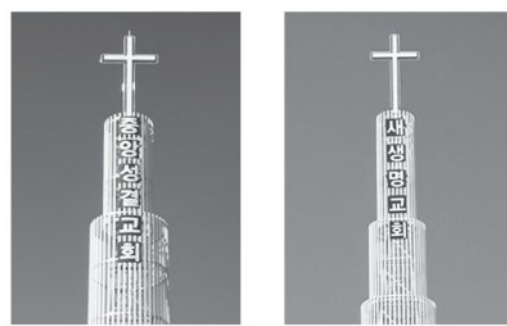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품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NAVER 검색창에서 **충만기업** 을 치세요!

충·만·기·업



- ◆ LED 설치 및 네온수리 전문★★
- ◆ 종탑, 종각, 파이프탑 시공
- ◆ 각종 구조물탑 시공
- ◆ 대형십자가, 소형십자가 시공
- ◆ 각종탑 철거, 이전

TEL: 02-802-2005 H.P: 010-5276-9049
FAX: 02-806-3334 (경남지점) 055-942-10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795-17 / 대표: 정현석 집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대표 김 덕 겸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역량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 한샘교회: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개 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원활한
혈액순환!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항산화
건강까지



하루
2캡슐



고품질
노르웨이산



하프물개
오메가3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철수를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송태훈 칼럼 이기적인 대제사장 가야바(Caiaphas)의 최후

회개 없는 꿈수, 예수 죽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길



송태훈 목사

류층 사람이다.

그는 이름대로 메사에 오목한 삶을 살 아서 욕심만 쟁기다 세상을 비참하게 떠 난 인물로 기록된다. 주후 1세기 영적으로 죽은 백성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메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조롱하고 심문한 대제사장(요 18:14)으로서, 주님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절대적 위치에 있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 전해지고 있으며(Josephus, Antiquities IX.7, 22), 전

구속사에서 부정적으로 매우 큰 역할을 한 가야바(Caiaphas)는 헬라어 이름 속에 '오목하다' 또는 '비어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1세기 이스라엘 민족 상

(前)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요 18:13)로 주후 18-36년까지 약 18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겸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으로 재직했다.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는 70여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사두개파 소속 대제사장이 최고 수장(首長)을 맡고 있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여 죽일 것을 꾀한 산헤드린 공의회 회의를 주관했다(마 26:3). 베다니 출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후, 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을 보고 주님을 추종하며 소위 신흥 기독교로 개종했다. 자신의 직위 유지에 큰 위협을 느낀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래서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여 죽일 음모

를 꾸민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신의 권력 기반인 로마 황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자신을 대제사장직에서 해직할 것이 매우 두려웠다. 공복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사적인 직위 수호에만 목숨을 걸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기 전, 대제사장 가야바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직접 소집해 주님을 체포했다. 어두운 야간을 선택해서 붙잡은 주님에게 극심한 조롱과 더불어 무례한 심문을 가했다(마 26:57, 요 18:13). 그의 민첩함과 음모적 지력은 요한복음 11장 49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 하는 도다”라고 산헤드린 공의회 석상에서 예언적

으로 말했다.

사악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언급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허용적 작정의 도구로 역할을 했다. 하나님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악한 동기와 행동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셨다. 구약에서의 발람(민 23:1-24)과 신약의 본디오 빌라도(요 19:4-6)는 대표적인 허용적 작정의 대상이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해질 죄인이라 억지 판결한 다음 그 집행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구한 것은 국민의 우두머리로서 공무상 의무였다(마 26:57, 요 18:24, 28).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으로 죽이는데 성공한 가야바는 또 한번 간교함을 드러냈

다. 유력한 바리새인들과 함께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염려했다. 유대에 파견한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무덤을 밤낮 지키도록 지시하고 부탁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 그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며 막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극심한 조롱과 폄박을 가했다(행 4:6, 7, 21). 육신의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부인하던 사두개파의 최고 수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활을 선포하고 다니는 제자들의 행태는 눈엣가시였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주후 37년경 새로 부임한 로마의 비텔리우스 총독에 의해 이스라엘 대제사장 직위가 전격 해임됐다. 아나누스(Ananus)의 아들 요나단이 그 후임으로 대제사장직에 올랐다. 자

신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마저 사적으로 남용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끝내 비극적인 하야(下野)를 경험하게 됐다. 하나님 주신 정도(正道)를 걷지 않는 사람의 끝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하야를 통해서 만방에 선언했다.

진정한 승리와 성공은 꿈을 부리거나,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룰 수 없다. 잠시 동안은 남을 속이므로 성공과 승리를 이룬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진실은 진실로 확인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의 정확한 법칙이다. 공권력을 이용해 사복을 채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마지막이 비참했던 것처럼, 속과 겉이 다른 지도자들의 꿈수도 때가 되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회개 없는 꿈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길을 반드시 걷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명심해야 한다.

언약과 광야 40년 경험

권혁승 칼럼 '언약'이란 무엇인가?(5)



권혁승 박사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그 사십 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느니라 너희는 이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민 14:30, 34)

역사적으로 언약은 광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곳이다. 언약을 맺으신 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 그곳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경험했던 장소이기도 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반된 광야 경험은 이원론적으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상호 보완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국은 거부되었다. 그거나 그것은 영구적인 것 아니라, 4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유효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본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이 불순종에 대한 일시적 심판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임을 보여 준다.

그런 기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정화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상반되면서 상호 보완성을 지닌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은, 후대에까지 이어져 예언서의 중요한 신학적 틀이 되기도 하였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자로는 예레미야와 호세아를

들 수 있다(렘 2:2 호 2:14-15).

고대 근동의 정치적 조약들은 체결에서 제시된 조건들이 매우 중요했다. 체결 조건의 조항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기면 곧바로 조약 자체가 파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대 근동의 정치적 조약들은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일종의 약정(contract)이었다. 엄격한 조건들에 묶여 있는 조약과는 달리, 언약은 보다 큰 유연성을 지닌다. 물론 언약에도 언약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특별 규정이 율법이 있다. 그러나 언약에서 낱말의 조항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조항들을 지키려는 마음가짐,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다.

율법 준수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 역시 저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일에 대한 징계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회복을 목적으로 한 정화의 과정이다.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은 반복되는 불순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민 25:1-3; 신 9:7-9 참조).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출애굽 구원의 최종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 심판이 복으로 전환된 것이다.

심판을 통한 복의 경험은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 자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40년간 방랑하며 지냈던 광야는 환경 그 자체가 저주였다.

그곳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 그런 광야에서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판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살려 주는 원동력이었음을 의미한다.

징계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선민 동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상호 충성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과의 결속을 유지하셨다. 그것이 '인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헤세드'의 본질적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하

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역시 '헤세드'로

해석할 수 있다(요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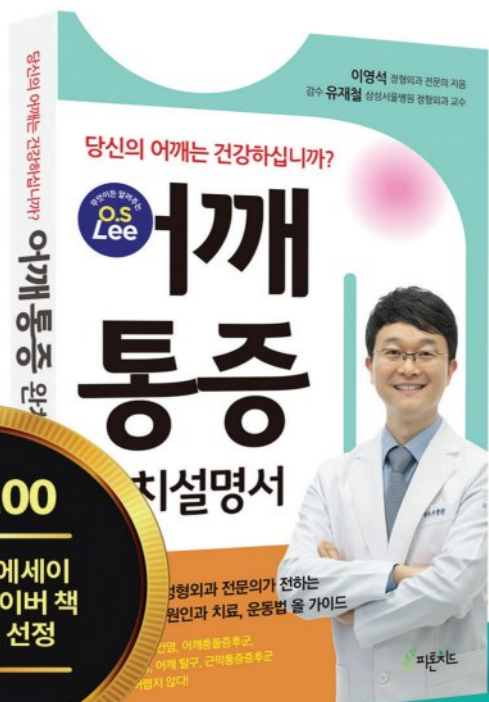
권혁승 박사(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

은혜 한 장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가정 부흥은 어디에서 오는가 (1)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목회자 릭 워렌이 한국을 다녀갔다. 그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열었고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도 집회를 했다. 목회자 집회에서는 2만 2천명, 상암 경기장에서는 10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 모두 열기가 가득한 성공적인 집회였다고 한다. 나는 기독교 TV가 중계를 하는 것을 집에서 보았다.

그 집회를 보고 마음이 기뻐했다. 그리고 감동이 되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뭔가 애절한 모습, 눈가에 물기를 담은 듯한 모습으로 간절하게 전하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나는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의 책을 읽고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베스트셀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조금 읽다가 마음이 답답해져서 곧 덮는 편이다. 많은 이들이 쫓는 길은 그다지 진리적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릭 워렌의 책은 달랐다. 무엇보다 진실성이 보였고 지혜롭다고 느껴졌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목적이지 삶』으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그 부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입의 10분의 9를 헌금했으며 오래전부터 몰던 한 차를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부는 그렇게 다루었지만 명성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애썼다고 한다. 그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역자임에 틀림없다.

신문을 보니 이 집회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며 상암동으로 가는 지하철역에 가득한 이들이 대부분 이 집회에 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이 집회를 성공적이라고 자랑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한국 교회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무엇보다도 그 열기가 뜨겁다. 부흥을 사모하고 원하는 열정이 한국 교회만큼 뜨거운 교회도 드물 것이다.

나는 대형 집회를 좋아한다. 이러한 집회가 보다 더 많이 개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다. 무엇보다도 대형 집회의 성공은 한두 교회의 힘으로는 어렵고 많은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러므로 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집회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회 측에서는 부활절 집회도 1년을 준비해야 그 정도 인원이 모일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그 정도 인원이 모인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다고 하였다.

TV로 집회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기뻐했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다. 대형 집회를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끌어갈 때 이런 집회의 형태는 한계가 있는 것을 선명하게 느끼게 되었다.

모이는 열정은 아름다웠지만 단순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 많이 모이고 열심히 모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모임 가운데 능력과 하늘의 영광과 열림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은 더 행복한 일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부흥을 사모한다. 그리고 부흥을 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 집회에서 그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짖으며 가슴을 토하며 외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실제로 부흥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거대한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열리며 악한 영들이 초토화되며 권능과 주의 영광이 그들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통곡과 사로잡힘과 영광과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공간은 바로 불바다가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실제로 목격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는 것을 맛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가르침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대표기도자의 기도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전 참석자가 같이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외치고 하늘의 영광과 임하심을 구할 때 오는 것이다. 여기고 성은 여호수아 혼자서 부르짖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외칠 때 무너지는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러한 구조는 집회에서 볼 수 없다. 99%를 인도자 한두 사

람이 말하고 가르치고 기도한다. 대중이 입을 벌릴 수 있는 기회는 기껏해야 찬양 몇 곡을 부를 때 정도이다. 통성 기도의 시간도 아주 적으며 대표기도까지 다 집행부에서 하나씩 그들은 그저 아멘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집회 시스템에서는 어느 누가 와도 부흥과 권능이 임할 수 없다. 대중의 입을 열어서 외치게 하는 것이 영의 풀려나옴과 하늘의 열림과 관계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집회를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다.

도대체 대표기도라는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는 전체 영혼의 묶임이 풀려질 수 없다.

과거에도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가 많이 열렸었다. 그것은 한국 교회 부흥의 중요

한 요인이었다. 60, 70년대에는 대표적으로 발리 그레함 집회가 있었다. 주로 전해진 메시지는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었다. 말씀이 끝나면 결신자들을 초청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다는 시인을 따라 하라고 했다. 그러면 구름 때 같은 인원이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했다.

아마 인도자들은 많은 영혼을 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상태를 오해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불신자나 초신자들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집회 참석자들은 교회를 충실히 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한국 교인들은 대체로 주님을 영접한 기억이 아주 많다. 수십 번까지 영접한 사람도 있다. 항상 인도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게 맞나 싶으면 또 영접하기도 하고 혹시 지난번에 영접한 것이 팽일지도 모르니까 확실하게 한번 더 하자... 하는 마음으로 영접하기도 한다.

한국인의 심성은 백인들과 달라서 그들이처럼 꼼꼼하게 따지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하지는 않는다. 당시의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어서 남들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는 편이다. 아멘도 아주 잘 한다. 진지한 고뇌 속에서 아멘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목회자의 설교에 리듬을 맞추어서 아멘을 하는 경향이 많다. 사실 사역자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좀 그렇다. <계속> 창골산 봉목사 제공

교회오빠

주님의 헤아림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 17:17)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나치게 신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가 대단히 크고 그 기반이 견고한 줄로 착각합니다.

어느 날 문득 그 경계선이 보일 때 당혹스러워 합니다. 그 경계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있거나, 인간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절벽 같은 암담함을 맛보거나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얽히고 얽힌 복잡한 사건 속에서 헤맬 때, 우리는 우리의 경계가 얼마나 좁고

가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습득한 모든 경험을 끄집어내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보았다고 스스로 포기하며 주저앉습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의 움직임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셈이란 게 모두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헤아림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을 뿐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당신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창골산 봉목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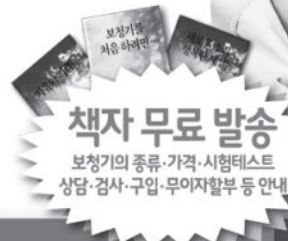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프로' 맥소'스텝' 맥소'크리스프' 맥소'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관전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대리점(취급점) 모집>

388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RIE(8-16채널) 고급제품 大할인 특별행사!! 보조금으로 고급제품 구입!! (청각장애등급2-6급 소지자)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언제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1544-9040

시니어 성가대 운영 전략

1. 시니어 성가대의 특성과 필요성 시니어 성가대는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 사회가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교회 내 시니어 성가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니어 성가대는 교회의 중요한 예배 팀 중 하나로, 노년층 성가대원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신앙을 깊게 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과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성가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시니어 성가대는 오랜 신앙 생활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교회 내 다른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찬양을 통해 젊은 세대와 신앙적 경험을 공유하며,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 이는	세대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지속 가능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성가대 활동은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며,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정기적인 연습과 예배 참여는 시니어들이 활기찬 신앙 생활을 유지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시니어 성가대원들은 오랜 세월 신앙 생활을 해온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다. 이들이 성가대를 통해 표현하는 찬양은 단순한 음악적 표현을 넘어,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다. 또한, 시니어 성가대는 성가대원 간의 깊은 교제와 연대감을 형성하여, 교회 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가대는 교회 음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시니어 성가대는 그들만의 독특한 음색과 표현력을 통해 교회 음악에 새로운 차원과 깊이를 더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릴 때, 시니어 성가대의 존재는 음악적 다양성을 제공하며, 시니어 성가대원들의 삶의 경험과 연륜을 통해 깊이 있는 감정과 영적 표현을 통해 예배의 풍성함을 더해줄 것이다.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빠른 템포의 곡보다는 안정적인 템포의 곡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당김음 등의 복잡한 리듬 보다는 4분음표 위주의 규칙적인 리듬이 주도하는 곡이 시니어 성가대원들이 편안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재 시니어 성가대를 위한 성가곡집 출판이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교회음악 작곡가들이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따라 시니어 성가대를 위한 곡들을 작편곡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적극적으로 창작활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시니어 성가대원들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깊은 감정과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잘 소화할 수 있다. 은혜로운 선율과 감동적인 가사가 있는 곡들로 찬양이 고백이 되는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다면 이들에게 큰 의미가 될 것이다.	3. 시니어 성가대 운영의 성공 요인 정기적인 연습은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연습 외에도 성가대원 간의 교류와 친목 활동을 통해 교회 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시니어 성가대원들이 건강한 상태로 성가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대와 발성을 보호할 수 있는 훈련과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호흡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시니어 성가대를 통한 음악적인 성취감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영적 돌봄과 지지, 상담 등을 통해 시니어 성가대원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시니어 성가대를 운영하고, 그들에게 맞는 곡을 선택함으로써 성가대 활동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될 것이다. 시니어 성가대는 그 자체로 교회 공동체의 큰 자산이며, 이들의 헌신과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다.
◆ 김지연 교회음악분야에서 작곡 및 지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오케스트라 편곡을 주로 하고있다. 현재 상명대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음악이론과목을 가르치는 책임강사로 있으며, 예배음악웹매거진의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음대에서 배우는 Music Theory(예출판사)>의 저자이다.				

합창소리(Choral Tone)와 발성법 (2)



발성의 기초

1) 자세

노래를 부를 때 먼저 몸의 자세가 중요하다. 좋은 자세란 한 마디로 말해 키가 커지는 자세인데, 다시 말해 몸을 일(1)자로 만드는 것이다. 배를 안으로 당기고, 허리는 펴고, 가슴은 비교적 높게 하며, 등이 굽지 않고, 턱도 안으로 당긴다. 양발은 평행하지 않아도 좋다. 앉아서 노래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다. 영어단어에는 없으나 Sit-up이란 말을 하고 싶다. 앉아서도 키를 크게 하는 것이다. 또한, 얼굴의 각도에 따라 소리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얼굴은 기본적으로 정면을 향하는 것이 좋다. 얼굴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 소리가 어두워지고 음정이 떨어지기 쉬우며, 턱이 들리면 소리가 알아지지게 된다.

2) 호흡

노래를 잘 하려면 복식호흡을 확실하게 배워야 한다. 복식호흡의 연습방법 4 단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일단 숨을 가슴 아래로 복식호흡을 하며 들이마신다. 그리고 10초 정도 정지

한다. 이때 많은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지 말고 절반 정도의 숨만 들이마신 후 멈춘다. 숨을 환경막 아래로 들이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10초 정도 지난 후 '하!' 하면서 마치 감탄을 하듯 숨을 한꺼번에 뱀다. 숨이 빠질 때 그 숨이 가슴에서 빠지는가 복부에서 빠지는가를 꼭 체크해야 한다. 숨은 복부에 저장하였으므로 그곳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다. 숨을 빼기 전 10초를 기다리는 동안 천천히 목을 한 바퀴 돌려보라. 그리고 숨을 빼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이 복부가 아닌 가슴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목을 뒤로 제치는 동안 저장된 숨이 다 가슴으로 올라와 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목을 뒤로 제치면 팔을 들어 올리면 환경막 아래로 저장된 숨은 그 자리에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1단계의 방법으로 숨을 들이쉬 후 마음속으로 하나부터 열을 세면서 숨을 뱀다. '쓰, 쓰, 쓰 - ' 하면서 10번에 나누어 숨을 빼는데 마치 고무 튜브의 바람을 뱀 때 위에서 손바닥으로 꼭 누르면 나는 소리를 생각하며 숨을 빼는 것이다. 몸속에 있는 숨도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다시 말해 환경막(갈비뼈 아래 정도에 넓게 있음)을 아래로 꼭 누르며 숨을 빼

는 것이다. 이때 배 안에 남아 있는 숨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느껴야 한다. 숨이 거의 빠졌을 때는 배 안에 남아 있는 미세한 숨이 가장 아래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숨을 아래로 유지하는 다시 말해 숨을 가라앉히는 방법이다. 이것을 매일 여러 차례 연습해야 한다.

3단계

2단계에서 숨을 뱀 때 '쓰, 쓰, 쓰 - ' (10회정도)를 구분해서 하였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쓰-'를 연속적으로 10초 정도 한다. 분명 숨은 입으로 나온다. 하지만 배에 저장하고 있는 숨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느껴야 한다. 예를 들어 컵에 있는 물을 빨대로 마신다고 가정해 보자. 빨대로 물을 빨면 분명 물은 위로 올라와 입으로 들어 갈 것이다. 하지만 밖에서 볼 때 컵 안에 있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숨은 위로 올라가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안의 숨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복식호흡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이다. '쓰-' 하며 숨을 내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몸에 특히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냥 목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숨을 조금씩 빼는 것이다. 내쉬는 숨의 양도 똑같이 해야 한다. 이 연습을 하면 숨

이 많이 가라앉으며 소리가 안정 될 것을 확인한다.

4단계

이것도 똑같은 방법인데, 2, 3단계가 '쓰-'하며 입을 거의 닫고 숨을 내쉬었다면 4단계는 입과 목을 열고 숨을 빼는 방법이다. 한번 시도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속으로 세어보라.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목과 입이 열려있어 숨이 금방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열거지 셀수 없으면 입끝 정도까지 세더라도 이렇게 숨을 빼는 연습을 하는데, 이때 약간의 '하!' 소리를 내도 좋다. 이것은 환경막으로 숨을 컨트롤 하는 연습이다. 4단계의 방법은 하루 이를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닌 어려운 작업이니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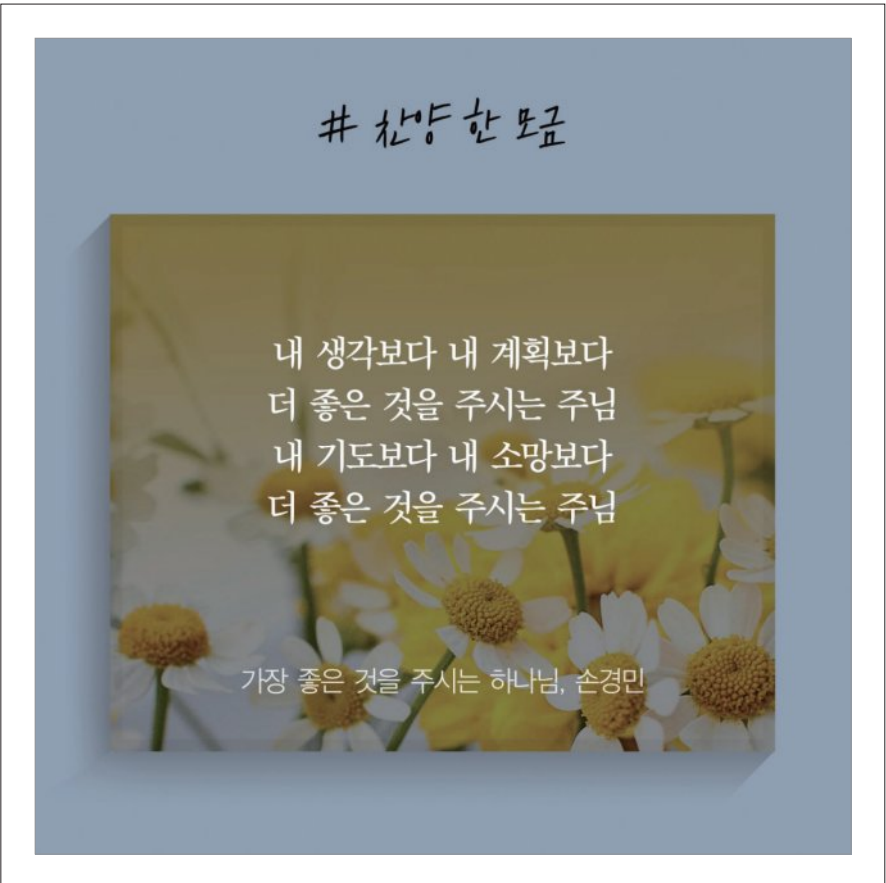
위의 1-4단계를 순서에 맞게 하루 최소 5회 이상 반복해야 복식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환경막은 일종의 근육이다. 계속되는 연습만이 근육을 형성시키고 숨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힘을 갖게 해줄 것이다.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숨을 내리는 것도 버릇같이 되어 훨씬 안정된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숨 연습을 안 해도 노래하는 시간이 모두 숨을 내리는 연습시간이 될 것이다.

출처 : 박신화 '합창테크닉'
지휘자 김영희

예배의 상징 - 사자(Lion)

사자는 오래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권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족속 출신인 다윗 왕의 혈통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정의와 연관되어왔고, 솔로몬의 심판의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사자가 하나씩 모두 열두 마리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왕상10:18-20). 중세시대에는 에스겔의 종말론적 생물 중 하나인 날개 달린 사자가 복음서 기자인 마가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나운 사자는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렐전5:8). 그리스도의 명칭 중의 하나는 “유대지파의 사자”(계5:5)입니다. 김영국 목사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The King of Kings’… 한국이 만든 애니메이션, 세계 시장 두드린다

엔젤 스튜디오, 예수님의 삶을 담은 오는 11일 개봉

부활절에 맞춰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The King of Kings>는 고전적인 이야기에 새로운 관점을 더해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장성호 감독의 이 영화는 마크 해밀, 우마 서먼, 피어스 브로스넬을 비롯한 스타급 성우진을 자랑하며, 찰스 디킨스와 그의 아들 월터 디킨스의 상상력 넘치는 시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진솔하게 재해석한다. 용서, 이해, 그리고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이다.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마다 가족에게 읽어주던 잘 알려지지 않은 단편 소설 “예수의 생애(The Life of Our Lord)” (1834년 사망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출판됨)에서 영감을 받은 은 독특한 서사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영화는 케네스 브레너가 목소리를 연기한 디킨스가 어린 아들 월터(로만 그리핀 데이비스에게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을 따라간다. 장난꾸러기 고양이 윌라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은 고대 예루살렘의 세계에 폭 빠져 예수의 탄생, 가르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목격하게 된다.

특히 이 작품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창작 역량으로 완성되어 더욱 주목받

고 있다.

연출과 프로듀싱을 맡은 장성호 감독은 국내 VFX(시각효과) 1세대 전문가로 <공동 경비 구역 JSA>, <해운대> 등 급진한 한국 영화에서 시각효과를 담당해 온 인물이다. 함께 제작을 이끈 김우형 감독은 <1987>, <암살>, <고지전> 등 다수의 흥행작을 촬영한 촬영감독으로 BAFTA 촬영조명상, 청룡영화상 등 국내외 우수 영화제에서 촬영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 받았다.

제작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CG/VFX 전문 기업 모팩 스튜디오(MOFAC STUDIOS, 이하 모팩)가 맡아, 섬세한 영상미와 완성도 높은 연출을 구현해 냈다. 모팩은 2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아티스트와 테크니션들이 모여 2022년 설립한 회사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핵심 인력은 지난 수십 년간 약 250여 편 이상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글로벌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VFX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운대>, <역도산>, <화산고> 등 200편 이상의 국내외 영화 및 드라마에 참여한 모팩은 업계 최초로 편집팀, FX팀, 기술 개발팀(R&D)을 구성하고 자체 파이



영화 중 한 장면. ©영화 스틸 컷

프라인과 작업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효율 제작 환경을 실현해 왔다.

최근에는 VFX 기반의 비주얼 플랫폼 서비스와 IP 콘텐츠 제작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크리에이티브와 최신 기술을 접목한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영화는 그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모팩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이자,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향한 새로운 도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장성호 감독은 이 익숙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영화 '만왕의 왕'에서 새롭게 풀어냈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어린이의 눈

을 통해 희망, 사랑,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힘을 재발견하고자 했다.

이 영화에는 유명 배우들이 성우로 참여해 각 인물에 생동력을 불어넣었다. 우마 서먼은 캐서린 디킨스의 목소리를, 마크 해밀은 헤롯 왕의 목소리를, 피어스 브로스넬은 본 디오 빌라도의 목소리를, 포레스트 휘테커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훌륭하게 소화했다. 이들의 연기는 감동적인 울림을 더하며, 관객들에게 이야기 속 매 순간의 무게감을 느끼게 한다. 엔딩 타이틀곡 'Live Like That'은 브로드웨이 스타 크리스틴 체노웨스가 맡아 감



동을 더한다. 체노웨스는 뮤지컬 <위키드(Wicked)>에서 글린다 역으로 주목받았으며, 토니상과 에미상을 모두 수상한 세계적인 뮤지컬 배우다. 체노웨스는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탐구하는 영화에 음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직업적, 개인적 이정표이다. 제 노래가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베들레헴의 변화한 거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사실적이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색채로 표현되어, 어른 관객뿐 아니라 어린 시청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영화 리뷰 사이트 ghmoviefreak에서, 토니 아산코마는 “다르게 이야기된, 가장 위대한 이야기(The Greatest Story Ever Told, Again but Differently)”라는 제목의 리뷰를 게재하며, 은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한다. 설교조로 개종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설득력 있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영화의 메시지와 깊은 교정이 더욱 깊이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썼다.

필름 포커스 온라인(filmfocusonline.com)의 로미 노튼은, “순수한 마법의 작품. 부활절에 맞춰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왕중왕>은 고전적인 이야기에 새로운 관점을 더해 생생하게 되살려낸다. 이 영화는 근본적으로 종교 영화이지만, 사랑, 희생,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는 신앙심이 깊은 관객을 넘어 관객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간다”고 썼다. 김민선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50 GOODTV 오늘의 찬양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어린이를 바라보라)	00 TV강단 강남성결(정인교) 30 TV강단 세한(주진)	30 성지가 좋다(477회)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2 / 오병이어 기법 교회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지호 목사(대구범어교회) 30 생명의 말씀-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0 생명의 양식 서산성결(김형배) 30 한소망 말씀 (최봉규)(113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804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권오규 목사(계산제일교회) 50 생명의 말씀-김원태 목사(수지구침의교회)	20 말씀의 생터 수원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 50 비전설교 대한민국 윤영민 목사	30 휴먼네트	20 주만찬(52회) 40 잘잘법 사순절 40일 묵상(32회)	00 새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황덕영 목사
	8:00	20 [생방송] 오늘의 정원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체인지 더 월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0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546회)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260회) 로마서 44강	00 복음강단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9:00	00 7000마라톤 - 특집 50 위대한 발걸음	50 말씀의 생터 아델포이교회 임동현 목사0	0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임소)2	10 새롭게하소서(10954회) 한창수 목사 1부	00 THE 공금 (6회) - 더 공금한 구원 4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470회)
	10:00	00 신앙예세이 10 더 초존 시즌2 미리보기 30 말씀노트 40 사인사색	2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0 50 말씀의 생터 전주완산교회 유병근 목사0	20 하용조 목사의 창세기 강해	00 CBS NEWS 10 20 잘 믿고 잘 사는 법(279회) 40 목사님 공금해요(99회)	00 글로벌 신앙토크쇼 왓츠윌(6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40 C채널 매거진 굿데이(274회)
오후	11:00	10 내가 매일 기쁘게	20 말씀의 생터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0 50 GOODTV 정오의 기도	1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50 원더풀 바이블	00 율포민(622회)	00 소문난 성경교실(457회) 장찬영 목사 여섯 번째 15강 교회행진 : 성장하는 사도 바울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470회) 50 말씀의 창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12:00	00 CTS 뉴스 20 신앙예세이 30 생명의 말씀-김중원 목사(경산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3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00 TV강단 오병이어(권영구) 30 오직예수 (이영훈)(883회)	20 복음강단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비전메시지 바른교회 조정현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김성곤 목사(풍성한교회) 30 한국기독교선교 140주년 기념 근대화유산 순례기	00 말씀의 생터 안양생명나무교회 손영숙 목사 30 말씀의 생터 소생교회 강복열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윤길중 목사(영동포교회)	2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니엘 기도회(31회)	3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캣 50 지금, 선교해YOU	00 GOODTV 특별간증 감사특방(한소망)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00 말씀의 힘 우연동(정준경) 30 새롭게하소서(11268회) 유세미 작가	30 성지가 좋다 국내편(10회) 청주 1
	15:00	40 7000마라톤 - 특집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라다곰	00 [말씀] 최경호 목사(또감사선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258회) 사도행전 18강	00 C채널스페셜 조혜련의 바이블콘서트
	16:00	30 생명의 말씀-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말씀의 생터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00 하용조 목사의 창세기 강해 4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50 [말씀] 김형익 목사(벤살롬교회)	10 맨투맨 처치(2회)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26회) 50 믿음의 대화 36.5(30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04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저녁	17:00	00 생명의 말씀-소강석 목사(새애넌교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생터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 30 강대상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888회) 50 영혼의 양식 수필재일(박성영)	00 말씀의 창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택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 30 말씀노트 40 2025 부활절 퍼레이드 특별방송	00 비전설교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 30 아베스의 기도	10 오픈 스테이지 5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어린이를 바라보라)	00 TV강단 성남빛나는(서학복) 30 산위의마를 예배 (김영준)(233회)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30 말씀의 창 엘드리교회 임병재 목사
	19:00	40 2025 부활절 퍼레이드 특별방송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5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어린이를 바라보라)	20 만나나(22회) 30 TV강단 두란노(이상문)	00 비전메시지 새성안교회 김은총 목사 30 스페셜 오직주님 영성의 워십(372회) 김하나 목사
	20: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부 미리클 30 생명의 말씀-장찬영 목사(강남중앙교회)	00 힐링스토리 1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40 GOODTV 저녁의 기도 5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아메이징 그레이스	00 CBS비전특강 이름 목사의 말씀 맥으로의 초대 50 CBS 교회소식(993회)	10 비전메시지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21: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CTS 뉴스	20 세계테마기행 50 GOODTV 뉴스	00 갈보리교회의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홍규)(4260회) 로마서 44강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22회)	1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24회)
	22:00	2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10 GOODTV 스페셜 김형석 교수의 비전 메시지 50 마음을 나누다 이심점심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충성! 은혜로羣	00 CBS NEWS 10 20 홀리한 내력(9회)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30회) 20 소문난 성경교실(454회) 장찬영 목사 여섯 번째 12강 교회행진 : 기도의 기도를 경험하다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저녁	23:00	20 바이블프로젝트 30 사인사색	10 GOODTV 특별간증 2024 다니엘 기도회	0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8회) 30 잘잘법 사순절 40일 묵상(32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546회)	00 2025 국제기독교영성공모전(1회) 대상 영화로운 작품 2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470회) 40 리바이츠 워십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4:00	00 오늘의 정원(69회) 50 [워킹온더바이블] 성지탐방(19회) 가이사랴_1편	10 오 자유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아메이징 그레이스	10 새롭게하소서(10954회) 한창수 목사 1부	00 마음으로 말해요 공감창고(2회) 5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1:00	00 오늘의 정원(69회) 50 [워킹온더바이블] 성지탐방(19회) 가이사랴_1편	1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40 GOODTV 시네마 입덧	0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4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니엘 기도회(32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525회)	00 포항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손병렬 목사
	2:00	10 2024 다니엘기도회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건/ 권오중 집사	00 GOODTV 특별간증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30 TV강단 용인산성(이대희)	00 말씀의 창 킨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29회)
	3:00	00 CTS바이블 요한복음 1부 50 힐링스토리(145회) 바라부가 사모	00 매일 주와 함께	00 [Global Sermon] R.T. Kendal's Word & Spirit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율포민(621회)	00 오직주님 영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김선도 감독 20 오늘의 양식 30 내 영혼의 찬양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황성온 목사(창동영광교회)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4259회) 요한복음 47강 50 CBS 교회소식(993회)	00 말씀의 창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4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596회)

북한산, 오봉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 (재)신세계공원묘원



평장단지



봉안단지



매장단지



수목장단지



입비형 평장 2위, 4위, 6위



평장 8위



평장 12위



매장+가족묘 단독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추IC에서 **5분!**

GTX-F노선 교외선 장흥역 개통으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 승용차이용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하시면
통일로 IC 15분, 송추IC 5분, 호원IC 15분, 의정부IC 15분,
구파발역, 의정부역에서 10분

- 금계포란형의 지형과 전묘역의 정남향 배치와 양지바른 명당

- 북한산, 도봉산을 조망하는 천혜의 명당

GTX-F노선 확정!!



연중무휴 24시간 상담가능 / 구파발역, 가남역 360번 버스이용 / 묘지이장 상담환영

※ 광고지 지참 방문시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1566-8843